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 호 5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第 5 호 (174)

1960년 5월 15일

차 례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3 모든 부문에서 당적 령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모든 부문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 누가 우리 나라의 혁명과 모든 정책에 대한 방침을 내세우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당이다.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를 지도하고 있다.…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최고의 조직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다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1958, 4, 29. 《전국 사법, 검찰 부문 일'군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당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직적이며 향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권 기관과 경제, 문화 기관, 사회 단체 등은 당의 령도 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군중 속에서 집행한다. 만일 정권 기관과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 큰 장애로 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

정권 기관과 모든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 성과 여부는 매개 부문에서 일하는 당원들의 열성과 책임성에 달려 있으며 당 단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88~390페지).

《…우리가 많은 사업 분야를 검열해 보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와 기타 모든 부면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

* 전호에서 계속.

…

…인민 위원회들은 해당한 도, 시, 군 당 집행 위원회의 통제하에 자기 사업을 해야 하며 공장에서는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모든 일이 수행되여야 한다》 (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우리 당은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 인민들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유일한 전투적 조직이다. 또한 우리 당은 조선에서 계급 투쟁과 혁명을 령도하는 유일한 당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과 투쟁할 것은 물론이고 수정주의가 싹 틀 수 있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해야 한다》 (1958, 3,6.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당의 령도라는 것은 어느 군 당 위원장 개인의 령도가 아니다. 그것은 당이라는 조직의 집체적 령도를 말한다. 즉 모든 당원들이 당 조직에 복종한다는 말이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어떤 동무들은 통제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령도나 통제나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어떤 개인의 통제를 받는다면 어떨는지 모르겠으나 당의 통제를 받는 데 무엇이 나쁘겠는가. 당의 통제란 곧 당원 대중들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혁명적 군중 관점이 서 있다면 당의 통제라는 말을 싫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우와 같은 문헌).

《…물론 당이 쓸 데 없이 행정을 대행하는 것은 방지해야 하겠지만 당은 정권 기관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기술이 천하에 제일이라는 기술 지상주의를 내걸고 당의 령도를 허심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 옳지 않은 경향이 있다.…

당의 의지와 령도를 떠난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그런 기술, 당의 혁명 과업을 실행하는 그런 기술만을 요구하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1958, 3, 6.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매개 일'군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당적 통제를 시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자기 사업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조선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호상 물어 보고 토론하는데 무엇이 시끄러운 것이 있으며 위신이 떨어질 것이 있겠는가?

앞으로 당 부서들은 행정 사업을 대행하거나 그의 뒤꼬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완전한 당 사업 즉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 주위에 대중을 광범히 묶어 세우며 당 정책 집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 경제 기관들에서 일하는 동무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당 부서들과의 련계를 잘 가지며 당적 지도와 통제를 허심하게 받아야 한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의 령도 체계를 확립하며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 기관이 정권 기관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라는 것은 정권 기관 사업을 가로타고 앉아서 독판을 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당이 정권 기관 사업을 지도한다는 것은 그 기관의 당조를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침투시키며 그 기관 내 당원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90페지).

《당 위원장과 행정 일'군과의 관계는 비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잡는 사람과 노 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행정 일'군은 앞에서 노를 젓고 당 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 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 갈 수 있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군 인민 위원회는 군 당 위원회 앞에서 책임지는 행정 부서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인민 위원회는 모든 사업을 반드시 군 당과 협의해야 한다.
군 인민 위원회가 도 인민 위원회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다면 군 인민 위원장은 그 지시를 집행할 데 대하여 반드시 군 당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군 당 위원장은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면 군 당 집행 위원회 토의에 부쳐야 한다.
군 당 집행 위원회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토의하며, 사업 분공을 할 것이다.
군 인민 위원장은 군 당 집행 위원회의 결정 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군 당 위원장은 초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동원되도록 하며 당 결정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감독해야 한다》(1958, 3, 7.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공장 내에서 최고 기관은 지배인이 아니라 공장 당 위원회이다. 공장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지배인과 당 위원장이 일하게 된다. 공장 당 위원회에서

경제 사업도 토론하고 그 결정에 의하여 지배인은 행정 사업을 집행하고 공장 당 위원장은 당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유일 관리제가 취소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지배인이 자기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속담에 〈구두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또한 〈소경이 셋이 모이면 못 보는 편지를 뜯어 본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집체적 지혜가 사업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 주는가를 말하는 것이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91페지).

《집체적 지도란 모여 앉아 회의나 하고 공인된 〈권위자〉들이 토론이나 하고 미리 준비된 결정서나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체적 지도라는 것은 광범한 군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그 지도 기관 전체 성원들의 적극적 참가 밑에 모든 문제를 심의, 처리하며 모든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하여 사업이 독단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92페지).

《집체적 지도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데서 어떤 개인의 주관적 독단을 방지하고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집체적 지혜로써 문제의 옳은 해결을 보장하여 준다.
…우리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우리 일'군들이 항상 대중과 다수의 의견에 관심을 돌리며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작풍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51~252페지).

《…협의제를 통하여 사업 경험을 총화하며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면서 집체적 총명과 지혜를 모아 더욱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1953, 8, 5. 《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50페지).

《집체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급 지도 기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위원회의 사업을 결정서나 작성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써 대행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키지 않고 있다.…
…각급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 대책의 하나는 그 구성을 개선하는 것

이다.…

…각급 당 지도 기관과 국가 기관들을 로숙한 혁명 간부들과 정치적으로 잘 준비되고 실무적으로 능숙한 일'군들로 꾸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52페지).

《…당, 정권 기관의 각급 위원회들은 당과 국가에 충직하고 유능한 일'군들로 구성되여야 하며 거기에는 로동자도, 농민도, 경제 일'군도, 기술자, 문화인도 참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위원회에서 좋은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92페지).

김 일성 동지는 당 정책 집행에 대한 검열과 그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당 사업의 목적은 결정서의 채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택한 결정서의 실현에 있다. 그런데 결정 실현은 결정 실행에 대한 해당한 검열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집행에 대한 검열은 우리 당 조직 사업의 기본 형태 중의 하나이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1953년도 판, 364~365페지).

《정확한 검열 사업의 조직은 당 기관들의 사업 형편을 밝혀 주는 탐조등으로 되며 관료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을 폭로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

사업 실행을 정확히 검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그것은 첫째로 사업 검열을 기회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사업을 검열할 때에 사업 검열을 하급 일'군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 지도 일'군들이 검열할 것을 요구한다.

…

…당의 지시와 결정이 하급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일상적으로 검열하며 검열에 대한 온갖 형식적 작풍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당 검열을 당 로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당 지도 일'군들은 우선 검열에 파견되는 당원들에게 검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검열의 목적과 과업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주어야 한다》(1948, 3, 28. 《북 조선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선집, 제 2권, 1954년도 판, 79페지).

《…검열은 결정 실행의 조직과 긴밀히 련결되여야 한다. 검열하는 사람은 사업에 있어서 람용이나 결점들을 적발하는 것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때에 퇴치하도록 당 단체들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1953년도 판, 366페지).

《지도 검열 사업에 파견된 동무들은 당원 대중들에 의하여 발견된 결함을 고치도록 방조해 주며 고칠 데 대한 방법도 당원 대중들과 함께 그 현지에서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 당 일'군들은 가방을 들고 행세나 하기 위하여 돌아 다닐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강연도 해 주며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집 마당도 쓸어 주고, 그들과 밥도 같이 먹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깨워 주어야 한다》(1958, 3, 7.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어떤 당 일'군들은…검열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당원들을 교양하며 그들의 잘못을 비판 시정하여 주며 그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정탐식, 경찰식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당원들을 위협 공갈하며 처벌을 되는 대로 한다. 그리하여 검열 받는 당원들로 하여금 공포를 가지게 하며 당 검열을 두려워하고 귀치 않게 생각하게 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많은 당원들이 거짓말로 검열에 응하게 되며 당 기관들은 하부의 실정을 알 수 없게 된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44페지).

《…검열 지도 사업에서 검토는 날카롭게 하고 처리는 관대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날카롭게 하라는 것은 결코 위협을 하고 심문식, 정탐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교양과 설복의 방법으로 날카롭게 검토하여 진상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함부로 모자를 씌우지 말고 할 말을 다 시켜야 한다》(1958, 4, 26. 《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당 기관 일'군들이 당 세도를 근절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어떤 어리석은 당 일'군들은 당이 맡겨 준 사업은 하지 않고 당 세도를 부리는 것으로써 당 사업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당 일'군들은 당 기관에 앉아서 당이 내세운 정책이 잘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 보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직하여 주며 잘못되는 것은 제때에 고쳐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앉아서 호령만 하고 있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43페지).

《물론 누구나 다 당성이 있고 당을 사랑하며 당을 받들어야 할 것만 사실이

다. 누구나 다 당의 로선에서 리탈되거나 당 생활에서 벗어 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당 생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 생활 규범은 당원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 단체 위원장의 위신은 당 세도에 의해서 유지될 것이 아니라 그의 참된 령도력에 의하여 보장되여야 한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당 위원장은 행정 기관에서 일하든, 사회 단체에서 일하든 기타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기수가 되여야 하지 구령을 부르는 사람이 되여서는 안 된다.…

당 위원장은 대렬의 선두에 서서 기'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하며 모든 일에서 남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당 일'군은 사업에 있어서는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여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4 지도를 하부에 더욱 접근시키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일'군들을 실속 있게 도와 줄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군들에 조성된…새 환경과 조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협동 조합의 규모가 커졌고 할 일이 많아졌으며 조합원들의 의식도 발전하였으므로 농촌 지도에서 이에 상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 당 위원회나 관리 위원회 일'군들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집체적 력량인 군의 령도 집단이 하부에 내려 가 직접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지도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1960, 2, 18.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요지).

《당 결정서나 각종 지시문을 내려 보내고 덮어 놓고 하라고 소리만 치고 돌아 다닌다면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

…당 기관이나 국가 기관이나 경제 기관 할 것 없이 상부에서 하부에 방조를

주는 방향에서 사업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하부 일'군들이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매개 세포가 건전하고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생활을 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당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도록 생기발랄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업에서 더욱 거대한 전진이 있을 것이다》(1955, 4, 4. 《사회주의 혁명의 현 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78페지).

《지금 군 당 위원회나 군 인민 위원회 간부들은 리에 내려 가서 며칠씩 묵으면서 현지 지도를 하지 않고 군에 앉아서 불러 들여다가 전부 내려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입식이 됐다. 받아 먹든 못 먹든 자꾸 내려 먹인다.

그래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좀 소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화불량증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다. 이것이 우리 령도에서 결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1958, 8, 5. 《자강도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몇 가지 과업》).

《시, 군 당 위원장 동무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중 속에 들어 가는 문제이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하부에 많이 내려 가야 한다.

시, 군 당 위원장 동무들은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초급 당 단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농촌, 공장, 학교 등 각 부문의 당 회의, 분조 회의에 많이 참가할 것이며 군중 회의들에도 자주 참가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원들의 당성이 어느 정도인가, 당원들의 사상-정치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당원들의 군중 령도 능력이 어떤가, 시, 군 당 위원회가 당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1957, 7, 5.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일이 잘 못된 다음에 리 당 위원장을 처벌하느라고 하지 말고 지도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결심을 채택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일을 잘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58, 8, 5. 《자강도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몇 가지 과업》).

《일반적 정형을 알아 보기 위하여 공장에 나가는 것과 실정을 료해하며 연구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은 같지 않다.

실정을 료해하고 연구하자면 적어도 한 공장에 가서 1주일 이상 묵어 있으

면서 지배인과 담화할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과도 담화해야 할 것이다.

당 회의에 참가하여 당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며 생산 협의회에 참가하여 혁신자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그 공장 사업에서 무엇이 결함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전반적 고리가 풀릴 수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령도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에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일반적 지도라는 것은 해당 사업에서 당의 정치적 목적을 대중에게 침투시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일반적 호소와 지도를 말하는 것이다.…

…개별적 지도라는 것은 해당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 조건과 대중의 의식 수준과 동향을 깊이 연구하여 그 특수한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구체적 실천 대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지도에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킴으로써만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조건과 대중에게 적합한 투쟁 형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중심 방향을 명확히 알고 경중을 갈라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켜 당의 정책을 인민 대중의 실지 생활과 투쟁에 결부시키며 인민 대중이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조건을 지어 주며 대중의 투쟁 경험을 다시 일반화하는 것이 당의 진정한 령도 방법이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48~250페지).

김 일성 동지는 당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며 객관적인 현실에 기초한 과학적인 지도 방법과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사업 태도를 견지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의 당 사업을 과거와 대비해 볼 때 많은 진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당 사업에는 행정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폐단이 적지 않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군중을 조직하며 인도할 대신에 명령하며 군중을 가르치며 군중 속에서 같이 호흡할 대신에 군중을 모른다고 뒤떨어졌다고 욕하며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군중과 리탈하는…이런 것이 즉 관료주의이다》(1947, 8, 28.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로동당》, 선집, 제 1권, 1955년도 판, 466페지).

《…혁명 사업이 군중을 배반하고 군중과 리탈하여 소수 지배 계급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 통치 방법인 관료주의와 어떻게 상용될 수 있겠는가? 혁명 사업은 인민을 위한 것이며 관료주의는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사업에서 관료주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40페지).

《관료주의병도…하루 아침에 퇴치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싸워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옳지 못한 사업 방법의 잔재를 완전히 뽑아 버리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형식주의적 일'군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결정서나 지도서를 무수히 채택하여 하급 당 단체에 발송하면 되는가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승리가 가혹한 투쟁 속에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잘 꾸며낸 장식한 형식적 결정서에 의하여 자연 생장적으로 오는가고 생각한다》(1948, 3, 28. 《북조선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선집, 제 2권, 1954년도 판, 81페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에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보지 않고 모든 사업을 주밀하게 조직하지 않고 문제에 봉착할 때에는 기계적으로 또한 조잡하게 하며 걸치레만 하고 내용이 없는 사업 작풍들을 가리켜 형식주의라고 한다》(1947, 8, 28.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로동당》, 선집, 제 1권, 1955년도 판, 466페지).

《문제를 처리할 때에 그 문제를 세밀히 연구하며 내용을 분석하며 문제 처리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지은 후에 그 문제 해결에 착수하며 문제 해결에 착수한 후에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작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 표면과 형식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진리와 실지를 추궁하는 사업 작풍을 수립하여야 한다》(1948, 3, 28. 《북조선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선집, 제 2권, 1954년도 판, 82페지).

《결정을 하나 채택하는 것도 하부 일'군들의 간단한 보고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한 기간 하부에 침투하여 현실을 똑똑히 파악한 기초 우에서 신중히 하여야 한다.

…

우리의 매개 지도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심중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왜냐 하면 당 중앙은 하급 당 단체들과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지도 일'군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방해하며 대중의 창발력을 억제하는 보수주

의, 관료주의 및 사무실적 작풍과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당 지도 일'군들로부터 전체 당원들에게 이르기까지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과의 산 련계를 맺으며 그들의 애국적인 발기를 지지하며 그들의 무궁 무진한 력량을 집결 동원할 수 있는 당적 작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데 있다》(1957, 12, 5.《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

《…우리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하부 실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

그러나 어떤 일'군들과 당 단체들은 객관적 현실을 조사, 연구, 료해, 분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적게 하며 리론적 기초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부 당 단체를 지도하거나 어떤 문제를 관찰 분석하며 결론을 지을 때에 그 내부적 본질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처리하여 엄중한 오유를 종종 범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 시, 군 당 위원회의 책임 일'군들은 자기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련결시켜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옳게 총화 분석하고 옳은 결론을 지어 사업의 지침으로 삼지 않으며, 자기의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에 의하여 모든 사업을 처리하며, 목전에 제기되는 단편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전망성 없이 사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제기된 문제들을 고립된 상태에서 보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당의 정책을 외곡 집행하고 있다.

이것은 당 사업에서 일'군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저하시키며, 그들을 기계적이고 고식적인 사업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당 일'군들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인 새 것을 감촉하고 그것을 지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관점을 흐리게 하는 등 엄중한 결함들을 발생시키고 있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546～547페지).

《우리 당원들, 특히 도, 시, 군 간부들이 당 정책을 실정에 맞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애를 쓰면서 일해야 한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혁명에 참가하는 눅거리 공산주의자가 돼서는 싸움을 못 한다》(1959, 11, 30.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한 결론 속기록 요지).

《사업에서 주동적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이 나가는 바람에 들떠서 당 정책을 심각히 연구하지 않으며 문제를 침착하게 분석하지 않으며 현실에 깊이 침투하지 않고 주관주의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등 심중치 못한 것이 우리

지도 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함으로 되고 있다.

남의 바람에 들떠서 돌아 다닐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자기 자리에 튼튼히 앉는 것이 중요하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군 당 위원장, 군 인민 위원장, 리 당 위원장, 리 인민 위원장들의 창발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가능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결정서에도 글자를 딱 박아 넣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당 중앙에서 로선이 쭉 서면 거기에 근거하여 자기 군내 인민들이 더 잘 살도록 창조적으로 일해야 되겠는데 탱상모를 내라 하면 예 하고 영양단지를 하라 하면 영양단지만 하고 그 이상 더 나가지 않는다》(1958, 8, 5. 《자강도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몇 가지 과업》).

《군 당 위원장들은 강습을 받고 와서는 한 1년 써 먹을 밑천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강습만 주면 다 되는 줄 안다.

또 강습 받은 리 당 위원장들은 군 당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만 하고 다른 것을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구경은 아래 사람들은 우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창발적으로 사업을 조직하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고쳐야 한다. 도에서는 군 당과 군 인민 위원회가 창발성을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고 군에서는 리 당과 리 인민 위원회들이 창발성을 내도록 조건을 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우와 같은 문헌).

5 모든 당원들을 다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모든 당원들이 당 정책의 본질과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명백히 알고 군중 속에서 조직 동원자적 역할을 제고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이란 곧 당원 대중이 뭉친 조직체이다.

당 사업이란 바로 이 조직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움직여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당이, 전체 당원들이 다 일상적으로 당의 규약상 요구

대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1960, 2, 18.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요지).

《…100만 당원을 다 당의 충직한 전사로 만들며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군중 사업을 할 줄 알고 당원의 선봉적 역할을 옳게 수행하게 한다면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더욱 튼튼하여질 것이며 당의 전투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당 중앙 위원회 사람들만 같은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당, 군 당,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소리를 해야 한다.

각급 당 일'군들은 당 중앙 상무 위원회의 의도와 당의 정책을 우선 옳게 리해하여야 그것을 옳게 집행할 수 있다》(1958, 3, 7.《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중요한 것은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이다. 당 정책을 어김 없이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 정책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당 정책을 심오히 연구하며 그를 대중에게 해설하고 침투시킴으로써 당 정책이 대중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의 조직 동원자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급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초급 당 단체는 우리 당의 세포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인체 내의 매개 세포들이 건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을 공고화하려면 그의 세포 조직인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해야 한다. 초급 당 단체들이 모두 건전하게 강화된다면 필연코 전 당이 강화될 것이다》(1957, 7, 5.《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당 세포를 강화하려면 매개 세포 내에 세포의 핵심 분자들을 양성하며 세포의 사업 분공을 옳게 조직하며 당원들에게 맡긴 과업들을 잘 실행하는가 못하는가를 검열하며 또한 제때에 시정해 주며 세포 회의를 계획성 있게 하며 그 세포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도록 사업 방침들을 수립하여 토론하여야 하며 세포 내에서 당적 비판과 옳은 분석을 전개함으로써 세포 사업을 사기 침침한 세포로부터 활발하고 긴장한 산 세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48, 3, 28. 《북조선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선집, 제 2권, 1954년도 판, 78폐지).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당성 단련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당에 대한 당원들의 충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957, 7, 5.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당원들의 《…당성 단련, 당성 제고도 오직 당 생활에서만 가능하며 당 생활을 잘 하는 데서만 될 수 있다》(1958, 3, 1. 《내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임무는 없다. 당원들은 다 당 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제일 가는 임무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떠나서는 당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우와 같은 문헌).

《…당내에는 당성이 강하고 사업 수준이 높은 당원이 많은 반면에 아직 정치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당원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의 당성 단련과 계급적 각오 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원들이 규약상 의무를 옳게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 규약은 당원들의 일체 활동과 생활의 기본 표준이며 기초이다.…

… 적지 않은 당원들은 당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당 규약상 의무와 당 생활의 원칙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당 규률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당 단체들은 경제, 문화 건설에서 당원들이 하여야 할 역할과 당 규률에 대한 자각적 태도, 당 사업 토의, 당내 사상 투쟁에서의 그들의 적극성을 높이며 대중과 단결할 줄 아는 인민적 사업 작풍을 수립하는 등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측면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당 회의와 당 학습에의 참가, 당비 납부 등 초보적인 요구에 머무르고 있다.

이리하여 적지 않은 당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당 사업 분공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자기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당 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비판과 자기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며 각급 당 단체들의 일체 활동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여야

한다》 (1956,4,23.《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541~543페지).

《이와 함께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간부들로부터 당 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

… 당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당 결정에 충실히 복종하는 것은 그 공로와 직위에 관계 없이 전체 당원들에게 의무적이여야 한다는 레닌적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와 같은 문헌).

《…누구를 물론하고 당 생활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제든지 이러저러한 오유와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생활을 기피하는 경향과 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이와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1958, 3, 6.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이 혁명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교양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조직된 선봉대이다. 혁명을 령도하며 인민 대중을 령도하는 당 조직에 어떻게 당원들을 되는 대로 받아 들였다가는 맞갖지 않다고 간단히 내쫓을 수 있겠는가? 당에 받아 들인 이상에는 그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참을성 있게 교양하여야 하며 비록 과오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정하고 더욱 충실한 당원이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선집,제 4권, 1960년도 판, 386페지).

《…당 지도 기관은 당원이나 당 간부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잘못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업에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당 학습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등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항상 세심한 관심을 돌리면서 그에게 적당한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한다》 (우와 같은 문헌).

《…당은 언제든지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서 당원들에게 대하여야 한다. 그들에 대한 사상 문화 교양과 그들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당 기관, 당 조직, 당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은 항상 당원들을 교양하고 설복하여야 한다》(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당은 당원들에게 항상 아이를 기르는 어버이와 같이 대하여야 한다. 아이를 기르는 어버이 치고 자기 아이가 잘못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기 아이가 강'가에 나가 물에 빠질 위험이 없는가, 길'가

에서 차에 치울 위험이 없는가, 거짓말을 하지나 않는가에 대하여 늘 보살피게 마련이다.

당 조직 사업도 바로 이렇게 해야 하며 당원들의 성격과 사상 동태, 그의 우점과 결점을 잘 알아 가지고 그가 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은 당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알려 주며 그들의 사업상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 주어야 한다. 그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충고하고 도덕적으로 부화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며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미리 손을 써서 그러한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당 단체는 어느 한 당원도 나쁜 길에 들어 서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며 매개 당원을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충고를 주어도 듣지 않고 계속 나쁜 길로 나아가려는 당원이 있다면 그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빠져 나오도록 더욱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례를 들어 집안 식구가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이 감기인가, 속병인가를 진단하여 적당한 약을 쓰듯이 당원이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과오를 범하게 된 원인을 구명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에게 효과적인 동지적 방조를 주어야 한다.…

당원들의 사상상 또는 행동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지적 교양을 주는 것, 이것이 당원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태도이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86~387페지).

《…초급 당 단체들은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도록 교양하며 당을 위해서는 어떠한 간난신고라도 무릅쓰고 투쟁해 나갈 각오를 가지며 당을 해치고 당을 반대하려는 그 어떤 자들과도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당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투사가 되도록 교양 훈련해야 한다》(1957, 7, 5. 《도, 시, 군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당 조직은 당원들을 항상 교양하는 동시에 사업을 분공하여 실천적인 투쟁에로 인입하며 당원들은 또한 항상 로동자, 농민, 사무원 등 광범한 비당원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을 교양하고 군중 생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일에서 군중의 선봉에 서고 군중이 곤난해 하는 일에는 먼저 뛰여 들어 가 실천하며 일에서나 학습에서나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군중 속에서 혁명 투쟁의 기수가 되여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야 한다》(1959, 3, 23.《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군중 사업을 잘 조직할 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군중 사업을 잘 하려면 매개 당원들이 령도 예술을 소유해야 한다. 령도 예술을 소유함이 없이 다만 당에 대한 충실성 하나만으로써는 당원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당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며 그들에게 당 정책을 옳게 해설하여 주며 그의 실행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다 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려면 군중과 사업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초급 당 단체들은 민청, 직맹, 녀맹 등 사회 단체 사업과 통일 전선 사업을 잘 할 줄 알며 로동자, 농민, 녀성, 청년, 학생, 문학-예술인… 등 각계 각층 사람들 속에서 능숙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당원들을 교양 훈련해야 한다. 만약 매개 당원들이 모든 사람들과 능숙하게 사업할 수 있는 령도 예술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또한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반당 분자,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철저히 천개하도록 그들을 교양해야 한다.

…

또한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경제를 운영하며 생산을 발전시킬 줄 아는 당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각 부문의 초급 당 단체들이 당원들을 이렇게 교양한다면 그 당 단체들은 물론이요 전 당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1957, 7, 5.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군중 공작을 일상적으로 주의 깊게 지도 방조하여야 하며 군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들을 엄격히 비판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인민 대중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야 하며,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적 력량에 의거할 줄 알게 하며, 일상 생활에서 소박하고 겸손하며 우리의 인민적 례절과 풍습들을 존중하며 그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545페지). — 끝 —

박 종순 편집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심화될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대중적 인민 항쟁은 거대한 첫 승리를 거두고 계속 심화되여 가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변에 대하여 똑똑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 똑똑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곧 우리 혁명의 기본 문제인 조국의 통일 위업에 대한 명확한 행동 방침을 오늘 변천된 조건에 적합하게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모든 현상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면상 현상과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 과정을 명료하게 구분하는 문제다.

이 본질적 과정, 경향을 포착할 때에만 우리는 그릇된 평가와 불필요한 환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남조선 사태 발전에 대한 심오하고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남조선에서의 정확한 투쟁 로선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당이 취하여야 할 실천적 대책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호소문과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련석 회의 성명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을 표명하였으며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로부터의 유일하게 확실한 출로를 명시하였다.

인민 항쟁과 《자유 세계》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남조선 주구들은 리 승만의 파쑈 독재 정권이 무너지리라고는 리 승만이 쫓겨날 직전까지도 생각지 못하였다. 또 생각할 수도 없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총검과 딸라만 있으면 남조선 사람들을 마음 대로 예속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리 승만 역도는 미국 상전에게만 잘 보이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승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강도적 수법을 《3.15 정 부통령 선거》의 날조와 남조선 각 도시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평화적 시위에도 꺼리낌 없이 적용하였다.

그러나 4월 26일 서울시 시위 군중들이 경무대를 포위하였을 때에 리 승만은 혼겁한 나머지 공포의 경련을 일으켰고 리 기붕은 자살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제일 혼쌀난 것은 미국 상전이였다. 리 승만이나 리 기붕이나 기타 졸개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자기들의 개인적 세도와 출세와 생명이 문제로 되였다. 이들이 놀라든지 죽는다

든지 그리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남조선에 대한 그들의 정책, 나아가서는 그들이 온 세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문제로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며 세력을 부식시키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본질상 남조선에서와 꼭 마찬가지의 침략적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그들이 그렇게 미화하여 오던 《자유》, 《민주주의》, 《자유 세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정치, 정책 일반에 대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상치 못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헛된 수작을 하기 시작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15년 간 자기들이 길러냈고 꾸려 준 리 승만 정권을 다른 것으로써 교체한다는 것은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였으며 또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였다. 그러나 리 승만 도당을 희생시키는 것은 미국 정치의 손상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리 승만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써 남조선 사태의 원인이 자기들과는 관계 없이 오직 리 승만의 잘못에만 있는듯이 인민을 기만하기로 작정했다. 아이젠하워와 허터의 지시를 받아 《주한》 미국 대사 맥코노이는 이 방향에서 맹《활약》을 개시했다. 4월 26일만 하여도 맥코노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무대에 달려 갔으며 끝내 리 승만의 사퇴를 승낙시켰다.

그날 벌써 미국 통치 집단과 더불어 맥코노이는 미국 정치의 손상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들의 《고안의 순조로운 진척》에 대단히 만족했다. 맥코노이는 리 승만이 자기 비운을 원망하여 통곡하고 있는 바로 26일 밤 자기 활동의 《성과》를 축하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과 전 세계 인민이 그들의 서투른 술책에 절대로 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이 《성공》을 운운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 통치 집단의 이 어리석은 술책은 바로 미국 내의 부르죠아 신문들까지도 옳게 폭로하였다.

미국의 이름난 시사 평론가 월타 립프만은 금번 남조선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 국가는 미국 무기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미국의 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미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유지된다. 전 세계가 이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따라서 남조선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합중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전 세계는 간주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이 우리 인민 앞에 지은 죄행은 열 번 목을 베여도 다 결산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

리 승만 도당의 이 모든 범죄는 미국 상전의 지시와 조종하에 수행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에서와 같은 수작을 하고 있을 때에 미제의 다른 괴뢰들은 리 승만 도당에게 책망과 욕설을 퍼부었다. 어제까지 리 승만을 훌륭한 통치자라고 찬양해 오던 대만의 장 개석 도당, 남부 월남의 느고 딘 디엠, 토이기의 멘데레스, 서반아의 프랑코 도당들이 앞을 다투어 리 승만 도당을 비난하였다.

이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 괴뢰들과 파쑈 도당들은 남조선 사변에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운명을 보았으며 거기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자들은 자기들이 리 승만 도당과는 전혀 다른 통치자라는 것을 인민 대중에 보이기 위한 서투른 연극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장 개석 도당의 대변인은 리 승만이 15년 간에 한 일은 《자유 세계》를 훼손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와 그의 졸개들은 남조선 사변을 오직 리 승만의 특수한 개별적인 실책에서 나온 국부적인 사변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사변은 결코 리 승만 도당의 일시적 실책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에 강요한 《자유 세계》의 모순의 폭발인 것이다.

리 승만 도당의 일시적 실책이나 《정부통령 선거》나 김 주련 소년의 총살 사건이나 기타 개별적 사건들은 모두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15년 간에 걸친 학정 속에서 시리고 서린 남조선 인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항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되였을 따름이다. 우리는 사건의 원인과 계기를 똑똑히 구별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 사회의 모순이 금번 사변의 원인으로 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 모순을 격화시킨 강력한 요인에 대하여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화국 북반부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인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성과 특히 최근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남조선 사회의 내부 모순을 결정적으로 격화시켰으며 남조선 통치 집단의 정치적 위기를 헤아릴 수 없이 촉진시켰다.

로동자, 농민의 국가이며 모든 근로자들의 자유와 행복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국가—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는 남반부 인민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우리는 어째서 북반부 인민들과 같이 실업이 없고 굶는 일이 없고 누구나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서 살 수 없는가》고 남조선 인민들이 생각하게 되였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실지로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며 사람들을 그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로 일떠 서게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는 남조선 인민 대중의 반미 반리 승만 감정을 더욱 첨예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통치 집단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도 되였다.

통치 집단 내부에서는 리 승만 도당이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격증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신분상 안전을 위하여 동요하는 자가 불어 갔으며 이 모든 것들은 통치 집단 내의 갈등과 알륵을 격증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조선 인민의 역적 리 승만을 물러나게 한 남조선 인민 항쟁의 승리는 또한 우리 당 정책의 승리, 공화국 인민의 승리로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커다란 긍지감과 응당한 권리로써 말할 수 있다.

인민 항쟁의 의식성과 조직성

남조선 인민 항쟁이 우에서 언급된 그러한 원인에 기초한 것만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지주, 예속 자본가의 리익을 대표하는 통치 집단—의 세력을 반대하는 데 돌려진 투쟁이였다. 항쟁의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 투쟁은 우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 나아가서는 미제의 식민주의 전반에 타격을 주었으며 남조선 통치 계급인 예속 자본가와 지주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충분히 의식화되지 못하고 통일적으로 지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항쟁 주력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번 항쟁에서 주력이 로동자, 농민으로 될 수 없었는가, 이 계급들은 가장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중적 정치 투쟁에서의 의식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남조선에는 공업이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선 로동자들의 수가 극히 적다. 더우기 대규모 기업이 거의 없는만큼 집중화되고 계급적으로 각성된 로동자들은 더욱 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로동 계급의 선봉적 역할은 그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근대적 프로레타리아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대중의 정치 투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변 행정에서(부분적 공장의 로동자들을 제외하고) 남조선 로동자들은 이 항쟁이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리해 관계와 어떻게 결부되는가를 충분히 인식 못하였으며 따라서 선두에 나서지 못하였다.

로동 계급은 비록 근대 사회의 가장 선진적 계급이지만 그들 속에 당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계급 의식이 고취되지 못하고 반대로 반동 계급의 어용 단체들에 의하여 계급 의식이 마비되는 조건하에서는 자기의 응당한 력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맑스주의 진리를 금번 사건이 또다시 실증하여 준다.

농민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는 남조선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된 농민들이 로동 계급 또는 그의 전위대의 지도가 없는 조건에서는 조직화될 수 없으며 성과적인 투쟁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지방적으로 봉기가 일어난 경우는 있었으나 항쟁이 고조될 때에 이에 합류하지는 못하였다.

금번 항쟁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정치 정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그들의 생활 환경이 집단적 행동에로 넘어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로동자, 농민들이 조직화되고 각성되지 못한 조건에서 학생들은 어느 계층보다 정치의 부패성에 대하여 민감한 계층이다.

그들은 외국인들이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자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것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었으며 학생 총살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보다도 격분을 참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선거의 협잡성과 학생 학살 사건을 반대하여 집단적 시위에로 나섰다. 시위 과정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더욱 각성되였으며 단순한 《선거》 날조나 경찰관의 잘못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정치 일반에 문제가 걸리고 있다는 것까지도 의식하게 되였으며 의식 정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명백히 표시된 정치적 구호를 들고 나섰으며 더욱 대담하게 나섰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남조선 인민 항쟁 과정이 똑똑히 우리에게 말해 준다.

3월 15일 마산시에서 약 1만 명 시위가 단행되였을 때에 그들은 전날 감금된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와 《선거 무효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약 10일이 지나 간 후에 학생들은 문제는 리 승만 도당의 지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여 처음으로 《리 승만 정부는 물러 가라》라는 구호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 후 투쟁이 격화되자 시위 군중은 더욱 격분된 구호 《리 기붕 죽어라》, 《살인 경찰 잡아내라》 등을 들고 나왔으며 행동도 더 조직화되고 대담하게 되여 갔다.

항쟁은 4월 25~26일에 절정에 달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자유당 본부》, 《특무대》, 《반공 회관》, 리 승만의 대변 신문이며 괴뢰 정부의 기관지인 《서울 신문사》들에 불을 지르고 리 승만의 거처인 《경무대》와 괴뢰 《중앙청》, 《한미 경제 협조처》를 습격하였으며 수 많은 경찰서, 파출소를 파괴, 소각, 점령하였으며 리 승만의 즉시 사퇴를 요구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항쟁은 결국 15년 간이나 세력을 자기에게 집중시켜 온 리 승만이와 그의 일부 졸개들을 통치적 지위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항쟁은 미제와 남조선의 예속 자본가, 지주의 통치 체계를 심히 약화시켰으며 그들의 정치적 지배에 불안정 상태를 조성케 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야만적으로 탄압 당하고 있던 혁신 세력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이것이 인민 항쟁이 거둔 성과이며 승리이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계엄령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인민들의 자유로운 사회 생활을 구속하고 있으며 정부에는 리 승만과 같은 미제의 충실한 주구 허 정 도당이 리 승만을 대신하여 들어 앉았다. 남조선 근로자들의 생활 처지에는 아무러한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남조선은 그대로 미제의 식민지로 남아 있다.

즉 항쟁의 근본 원인으로 된 남조선 사회의 모순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남조선 인민의 항쟁이 다만 선거를 다시 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데만 돌려지지 않고 점차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남조선 정치 전반을 반대하는 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조선 지배 계층들은 커다란 위협을 느

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제의 조종하에 항쟁을 저지시키기에 힘을 합치였다.

그들은 《혁명은 이미 수행되였다. 자숙과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중을 기만하면서 항쟁을 저지시키기에 발광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항쟁자들을 대량적으로 체포 구금하며 다른 편으로는 《쇄신》, 《민주주의》 등의 빈말로써 대중을 회유하는 간교한 술책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대중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능숙하게 령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도적 력량을 가지지 못하였고 리 승만 도당이 물러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환상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대중들의 투쟁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더욱 높은 단계에로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의 기본 군중의 각성과 투쟁에서의 대중의 조직성, 의식성을 요구한다.

4월 26일 리 승만 도당이 쫓겨났을 때에 항쟁자들은 남조선 정치에서 커다란 변동을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대중의 정치 사회 생활에는 아무러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항쟁자들이 흘린 피의 응당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다.

이러한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대중들은 미제와 그의 주구들이 인민의 도살자이며 극악한 원쑤라는 것을 더욱 자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비록 더 소규모적이나마 4월 26일 사변 후 시위는 계속되였으며 대중들은 더 급진적인 구호들을 들고 나섰고 로동자, 농민, 걸인(乞人)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부산 부두 로동자들의 시위 투쟁과 거창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부산시와 기타 도시들에서의 시위자들은 《기성 정치인은 물러가라!》 《국회는 즉시 해산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 남조선 정치 전반을 반대하는 더욱 심각한 투쟁에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에서는 점차적이나마 대중의 더욱 위대한 혁명적 진출이 배태되여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 투쟁에 일떠 선 대중들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한걸음 한걸음 더욱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 왔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중의 정치 투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남조선 항쟁자들의 조직성과 의식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 것은 항쟁 발전의 매 시기에 우리 당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정확한 투쟁 대책과 구호를 제때에 제시해 준 사실이다. 우리 당은 마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벌써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더욱 커다란 사변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으며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침과 구호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방송이 전하는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지지 성원의 목소리는 시위자들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였다.

지도자의 결여와 조직성, 의식성의 미약으로 인하여 인민 항쟁이 아직 혁명적 진출에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로동당원들과 모든 의식적인 사람들은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조직된 우리 당의 당 조직들을 적에게 넘겨 완전히 파괴시킨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종파 도당의 죄악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항쟁의 교훈을 통하여 당원들은 종파는 혁명을 말아먹는다는 이미 체험한 진리를 또다시 새삼스럽게 간직하게 되였다.

이번 인민 항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는 겉으로는 강한듯이 보이나 내막은 허약하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레닌은 제국주의는 《진흙으로 만든 다리》라고 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제나 미제나 할 것 없이 그의 연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완강하고 비타협적인 반제 투쟁 방침을 고수하여 왔다.

인민 항쟁의 상술한 제한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통치 기구에 그와 같은 타격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허약성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평가의 새로운 확증으로 된다.

금번 남조선 인민 항쟁은 우리 인민이 굳게 단결한다면 그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으로부터 반드시 물러 가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항쟁은 미제의 예속하에 놓여 있거나 또는 그의 영향하에서 압박 받고 착취 당하고 있는 모든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남조선 인민 항쟁과 관련하여 일본 인민들의 《일미 안전 보장 조약》 반대 투쟁이 더욱 앙양되였으며 토이기에서 독재 정부를 반대하는 광범한 시위 운동이 전개된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투쟁은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남조선 사태는 김 일성 동지가 이미 규정한 그대로 발전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리 승만 대신에 허 정 도당을 내세워 《과도 정부》를 꾸리고 있으나 남조선에서 그들의 통치 기반은 계속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인민 항쟁의 결과에 조성된 남조선 《정부》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통치 세력은 현재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그것은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자체로서 해결할 길은 도저히 없으며 따라서 인민 대중의 사회 경제적 요구를 초보적이라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통치 집단 내에서의 정치 투기업자들의 갈등과 내홍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이러한 사태로부터의 《출로》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 원조》의 증대와 《강력한 정치》의 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정치적 안정》의 명목하에 그 피묻은 침략적 마수를 우리 땅에 더 뻗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 인민도 이제는 미제의 통치, 미제의 《원조》가 결국 무엇을 가져 오는가를 더욱 명백히 인식하게 되

였다.

가령 남조선에 딸라가 더 들어 온다고 치자. 그러나 남조선에 미제와 부패한 정치가 남아 있고 협잡'군들이 통치적 지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조건에서 민족 경제 발전에나 인민들의 생활 문제 해결에 한푼도 돌아 가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에 와서 새삽스럽게 《경제 원조》가 지금까지 잘못 《리용》되였으니 대중의 의사에 맞게 《원조》를 제공하자 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달고 《원조》 리용 방도를 《공청회》(公聽會)에 부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원조》가 남조선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몰랐단 말인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 파렴치성이란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체험할 대로 다 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러한 파렴치성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금을 사취하고 횡령한 협잡'군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재산을 몰수하라고 요구하는 광범한 대중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협잡'군들을 길러낸 장본인도 역시 미 제국주의자들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소위 《원조》로써 자기들의 졸개를 육성하는 정책을 계통적으로 감행하여 온 것은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공청회》란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책임을 졸개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어떠한 가면을 쓰고 남조선에 딸라가 들어 온 대도 이것이 남조선 경제를 파국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들은 《강력한 정치》에 대하여 떠든다. 《강력한 정치》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부르죠아 반동 정치가들은 이 말을 바로 파쑈적 독재 정치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들은 히틀러나 프랑코나 멘데레스의 집정을 가리켜 《강력한 정치》라고 말한다. 즉 남조선에 리 승만 독재 정치와 비슷한 파쑈 테로 통치를 또다시 수립하자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흉악한 음모를 꾸미면서도 겉으로는 《쇄신》이니 무엇이니 떠들고 있다.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들의 도발 음모를 매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여야 할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불안정 상태에 대한 미제의 《수습책》이란 극히 위험한 것이다. 이 《수습책》은 실현되여서는 안 되며 될 수도 없다.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리 승만 도당의 학정하에서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현 사태로부터의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출로는 우리 당이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 조선의 협상이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실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조선 사태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남조선 통치 기반의 불안정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선 남조선 인민 대중의 빈궁과 무권리한 처지를 념두에 두는 것이다.

남조선의 경제적 파탄을 수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공화국 북반부의 강력한 공업, 농업에 의거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수십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며 병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으며 공부 못 하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학교에 다니며 수백만의 고아들이 행복스럽게 양육을 받는 것은 오직 그들이 공화국의 품안에 들어 올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조국의 통일 위업은 우선 우리의 주체적인 투쟁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혁명의 이 기본 과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이미 김 일성 동지가 천명한 바와 같이 북반부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이며 남반부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혁명 투쟁이 고조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며 심화되며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가 요구된다.

우리 당은 남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형편과 주민 구성의 특성으로 보아 농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커다란 주목을 돌린다. 이것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조건하에서 혁명의 승패는 농민 대중을 어떻게 묶어 세우는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방침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수행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정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방침인 것이다.

남반부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의 투쟁이 전개되기 위하여서는 당면하여 정치 사회 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자유가 보장되고 혁신 세력이 강화되여야 하며 또 실지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이 현재 조성되여 가고 있다.

오늘 남조선 사태는 김 일성 동지가 예견한 그대로 발전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우리 당을 자기들의 희망으로서 우러러 보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 고무되면서 생활과 투쟁의 체험을 통하여 점차 자기들의 불행의 근원을 깊이 자각하게 될 것이며 더욱 조직화되여 강력한 반제 반봉건 투쟁에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남조선 정세는 바로 이 방향으로 변화되여 나가고 있다.

조선 민족 해방 투쟁에서 조국 광복회의 혁명적 업적

김 경 인

레닌은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와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라!》(전집, 제 31권, 556페지)라는 구호의 필요성을 론증하면서 구라파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식민지 피압박 민족 해방 운동의 통일 전선에 대한 정연한 리론을 창시하였다. 특히 동방에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계급, 계층들의 단결의 필요성을 론증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에 최대의 주목을 돌릴 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당신들은 이 임무를 반드시 제기하고 자기의 독자적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며 《…이러한 동맹을 위한 특수한 형식을 반드시 찾아》(전집, 제 30권, 184,183페지)내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해방 투쟁 행정에서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발기되였고 직접 조직 전개된 조국 광복회 운동은 레닌의 이 교시의 조선에서의 창조적 구현이며 그의 거대한 승리이다. 조선 인민의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로서 출현한 조국 광복회는 우리 민족의 해방 운동사 상에서 불멸의 위훈과 빛나는 혁명적 업적을 남겨 놓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조선의 애국적 력량의 진출과 투쟁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끊임 없이 계속되였다. 반일 의병 운동과 애국 문화 계몽 운동에 뒤이어 로동 계급이 발생하면서 미약하나마 그들의 투쟁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1919년에는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족적 3.1 인민 봉기가 일어났으며 1920년대 초에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로동 운동이 정치 무대의 중심에 대두하였다. 이와 함께 농민, 학생 운동도 힘차게 전개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 후 20 여년 간의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은 그것이 애국적인 정의의 투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근본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전개된 반일 의병 운동에서는 운동 전체에 대한 유일적 지도가 없이 지방과 고을마다에서 제각기 의거한 의병들이 분산적이며 고립적인 활동으로서 강적 일제 침략군과 싸웠다.

이러한 의병 운동과 때를 같이 한 애국 문화 계몽 운동도 역시 그러하였다. 서로 《기요》요 《서북》이요 《호남》이요 하고 지방별 장벽을 쌓고 통일을 이루

지 못한 데서 운동은 일제의 강압적인 해산에 그만 고개를 수그리고 말았다.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전개된 공산주의 운동도 그 대렬 내에 들어 앉은 악랄한 종파 도당들에 의하여 사분 오렬이 되고 말았다. 종파 분자들의 가증스러운 파쟁은 일제를 상대로 로동 계급의 단결과 그 주위에 일체 반일 력량을 단합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령도하여야 할 공산당마저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혁명 력량이 단합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한 것, 이것은 실로 이 시기 조선 혁명의 장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량심적인 진정한 혁명가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였다.

그러기에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앙양에 처하여 조선 인민은 지난 시기 투쟁에서의 쓰라린 실패의 교훈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며 모든 혁명적, 애국적 력량들이 하나로 통일될 것을 무엇보다 절실히 념원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령도자의 출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조선 인민의 이 절실한 념원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탁월한 혁명적 실천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한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인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 운동에서 이룩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 혁명의 정확한 전략 전술이 수립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첫 시기부터 그 전략 전술을 직접 반영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조중 인민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종 반일 부대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강화하였으며 기존 대중 단체(농, 반, 호 3 단체를 비롯하여)들을 확대 발전시키면서 그를 반일 투쟁의 기치하에 결속시켜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장구한 세월을 두고 고질화된 종파 분자와 좌우경 기회주의자들의 각종 암해 책동과 파괴 행위에 부닥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산주의자들의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시도는 분쇄되고 말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0년을 전후한 시기 중국 동북 지방에서 종파 분자들의 죄행은 이 시기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주었다. 그들은 《엠엘파》계의 《만주 총국》을 위시하여 《화요파》계의 《만주 총국》, 《서상파》계의 《재만 공산주의 동맹》 등 제각기 간판을 들고 나와서 동북 지방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뜨렸다. 그 후 종파 분자들은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내 당 조직들에 잠입하여 역시 간악한 방법으로 혁명 대오의 분렬, 파괴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종파주의와 좌경 기회주의를 극복 청산하지 않고서는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일보도 전진시킬 수 없었으며 광범한 혁명 력량을 조직 동원할 수도 없었다.

항일 무장 투쟁은 1933년 말~1935년 초에 이르는 시기 간고한 시련에 부닥쳤다. 발악적으로 감행된 일제의 유격

근거지에 대한 공격과 야수적 《삼광 정책》의 결과에 당 조직과 혁명 단체들은 심대한 피해를 당하였다. 게다가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 기회주의자들과 악질적 종파 분자들의 극단한 좌경적 오유와 무분별한 망동은 우리 혁명 대렬의 단결에 일시 엄중한 사태를 조성케 하였다.

우리 혁명 운동이 부닥친 바로 이 준엄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는 몸소 이 난국을 타개하는 어려운 투쟁의 선두에 섰다. 1935년 초 다홍왜와 요영구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성과 혁명가적 대담성 그리고 완강성을 가지고 반《민생단》 투쟁의 좌경적 오유를 비판하였으며 근거지의 해산과 무장 부대의 광활한 지역에로의 진출을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 운동의 전진 도상에 가로막힌 어렵고 엄중한 장애를 타개함으로써 투쟁을 퇴조의 위협에서 고조에로 향도하였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의 첫날부터 종파 분자들과 좌우경 기회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그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무장 투쟁과 통일 전선 운동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은 일대 고조기에 들어섰다. 그것은 바로 항일 무장 투쟁과 반일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 운동이 유일한 맑스-레닌주의적 강령 밑에 전국적 범위에서 확대 발전된 데 있다.

특히 이 시기 운동의 앙양은 국제 혁명 운동과의 유기적 련계 속에서 이룩되였다. 당시 국제 공산당은 박두한 파씨즘과 자본의 공세 및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여 국제적 범위에서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과 인민 전선 결성을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각국 공산주의자들 앞에 내세웠으며 더우기 《식민지 및 반 식민지 제 국에서의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반제 국민 전선의 수립에 있다》 (콤인테른 제 7차 대회의 반파쑈 인민 전선 결의 중 5절에서)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의 통일 전선 운동은 국제 혁명 로선인 반파쑈 인민 전선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직 전개되였다.

통일 전선 운동은 조선 혁명 운동 발전에서 가장 긴절하고도 객관적인 요구로 제기되였다.

이에 있어서 1936년 2월과 5월의 남호두 소자지하와 무송 동강 회의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 발전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 왔다.

이 회의들에서 제시된 김 일성 동지의 방침에 의하여 항일 무장 투쟁과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으며 동시에 통일 전선 운동의 근본적 앙양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1936년 5월 5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조선 인민의 통일적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의 조직과 그의 10대 강령이 선포되였다.

이 력사적 조국 광복회는 자기의 선언에서 아직까지도 조국을 광복시키지 못하고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지 못한

것은 조선 독립을 열망하는 모든 혁명 단체들과 동포들이 일치 단결하지 못한데 있다고 천명하면서 《우리들은 국제 혁명 운동이 격렬한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선 독립 운동의 통일 전선을 형성할 것을 철저히 주장하여 마지 않는다. 당파(조선 혁명 단체), 종교, 계급(무산, 자산 계급), 지방별, 성별, 년령을 불문하고 무조건 대대적으로 단결 련합해서 공동 일치하게 일어나 우리 민족의 원쑤인 일본 제국주의를 〈만주국〉에서 그리고 조선에서 구축하고 조선의 독립, 민족의 자유 획득에 노력할 것이다.

망국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동포와 적의 기관에서 복무하는 애국적 량심을 가진 형제들이여! …

일치하게 일어나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여 조선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신성한 사업에 분투하라》고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이 때로부터 조국 광복회 운동은 실로 자기의 강령과 선언에서 제시한 대로 우리 민족 해방 투쟁에서 거대한 력사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당시 항일 무장 투쟁 앞에 가로막힌 갖은 중첩한 장애를 물리치고 그의 발전에 대로를 열어 놓았으며 전민족의 절박한 력사적 숙망인 반일 력량의 단결과 통일 위업을 실현하는 거대한 사변이였다.

조국 광복회 운동은 1~2년의 짧은 기간에 광활한 동북 지방과 조선 북부 국경 지대 그리고 조선의 중요 산업 중심지들과 농촌들을 장악하고 수십만 혁명 군중을 전취하였다. 이렇듯 거대한 혁명적 전개력과 견인력을 가진 조국 광복회 운동은 항일 무장 투쟁과 더불어 조선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그 중심 부분을 이루었다.

항일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 운동의 강화 발전에 따라 그 영향은 방방곡곡, 조선 남단에까지 침투되여 전국적 판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민족 해방 투쟁이 전개되였다.

암흑이 절정에 달한 절망 상태에서도 조선 인민은 《김 일성 장군》, 《김 일성 빨찌산 부대》에 대하여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였으며 그에서 힘을 얻은 그들은 래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조선 인민의 민족적 지향과 의지 및 신념은 이렇듯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가 제시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의 산 정신을 지침으로 하여 하나로 통일되였다.

통일 단결된 이 힘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끊임 없이 넘나들면서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일제 군경들을 상대로 하여 그처럼 장기간의 투쟁을 견지할 수 있었고 동만과 북만 그리고 장백과 조선에 걸친 광대한 지역에서의 대작전들과 국내 진공전에서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줄 수 있었다.

조국 광복회 운동은 혁명 군중을 집결함으로써 혁명 대렬의 확대 강화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육성과 결속, 나아가서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조국 광복회 운동으로 하여금 이러한 력사적 승리를 이룩하게 하였는가.

우리 나라에서 통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객관적 정세는 1920년대에도 이미 조성되여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통일 전선의 기본 원칙이며 그 전제인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 동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령도 핵심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로선이 서지 못하였었다. 결과에 통일적인 대중적 조직체로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신간회까지도 개량주의자들의 수중에 넘겨 주고 말았다.

그러므로 1930년대의 조국 광복회 운동의 승리는 객관적 정세가 유리한 데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조직자이며 령도자인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 령도를 통일된 의지로 높이 받든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가능한 일체 력량과의 동맹에 관한 레닌의 사상과 통일 전선 운동에 관한 국제 공산당의 결의를, 복잡한 계급, 계층들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능숙하게 적용함으로써 조선의 구체적 조건에 맞는 통일 전선 로선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직접 무장을 잡고 항일 무장 투쟁의 선두에 섰을 뿐만 아니라 통일 전선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체 불견실한 경향들과 가장 단호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항상 자신이 직접 그 시범과 전형을 창조하면서 이 사업을 지도하였다. 혁명의 동력과 그리고 통일 전선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협애한 배타주의, 좌경 관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일제와 그의 주구를 반대하는 일체 력량을 단합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사회 계급적 위치와 처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주고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청년 학생, 인테리, 민족주의자들, 도시 소자산 계급, 반일적 기분을 가진 일부 지주, 종교인, 지어는 적 기관 및 어용 단체에 복무하는 민족적 량심을 가진 계층들과 어용 단체의 하층 군중, 강제로 끌려 간 일제 군대에 복무하는 조선 청년들, 항일 구국군, 《위만군》의 초급 지휘관 및 하층 병사 등 실로 가능한 모든 계층들과 통일 전선을 짓거나 그들을 전취할 데 대하여 명시하였다.

이는 2중 3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의 온갖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성격과 그 모든 계급, 계층들의 일제와의 모순에 대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과 그를 리용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당시 몇 개의 격문들은 매우 교훈적이다.

《과거 반일 민족 혁명 운동에 참가한 동만 조선인 혁명 대중과 전우에게 고함》,

《조선 인민에게 격함》,

《전 동만 조선 청년에게 고함》,

《일본 군대에 근무하는 조선 청년에게 고함》,

《투항자에게 고함》,

《재만 조선 동포들에게》,

《조선 인민에게 고하는 글》 등.

이 격문들에는 제한이나 차별을 둠이 없이 온갖 가능성을 다하여 통일 전선을 확대하고 한 사람의 군중이라도 더 쟁취하기 위한 진지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산으로 다닐 때에는 어떻게 하면 왜놈 하나라도 더 잡겠는가, 어떻게 하면 군중을 더 많이 얻겠는가, 군중에게 영향을 어떻게 더 많이 주겠는가 하는 것을 매개인이 일상적으로 생각하였다》(1959년 11월 30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고 말씀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였다. 강령은 로동 계급의 당면 리익과 농민의 근본적 리익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강령은 전 민족의 공통한 최대 과업을 철두철미하게 관철시키면서 각 계층의 리해 관계를 정확하게 일일이 반영하고 있다. 강령은 반일적 기분을 가진 자산 계급 및 지주층을 적의 편으로부터 떼여내거나 이끌어 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다만 일제와 일본인 및 매국적 친일 분자의 생산 수단 및 재산, 토지의 몰수만을 규정하였다. 강령은 다수 계급, 계층들이 다같이 증오하던 일제의 채권, 각종 세금, 전매 제도의 취소, 노예 로동, 노예 교육, 강제 군사 복무 및 군사 교육의 철폐를 규정하였다. 강령의 일관한 사상은 《반일 통일 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함에 조선 인민을 총 동원하는 데 돌려졌다.

조국 광복회 운동의 강한 견인력은 그의 강령의 이러한 우월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조국 광복회》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도 그것은 심오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명칭 때문에 통일 전선 운동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게끔 충분히 민족적 형식을 취한 것이다. 《조국 광복》이라는 말은 당시 량심적인 모든 조선 사람의 절절한 념원으로서 일제의 조선 강점 이래 수십년 동안 내려 오면서 불리워 온 것을 고려하여 통일 전선 운동에 《조국 광복회》라는 명칭이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다. 동시에 그 하부 조직들에 내려 오면서 다양한 명칭을 띤 것은 지방에 따라 특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과 민족주의적 감정의 강약을 분별 있게 타산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통일 전선 운동의 령도에서 각개 부동한 대상과 조건에 적합한 모든 전술과 구체적인 공작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상들에 대한 각개 부동한 전술이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당시 실정에서 우선 농촌의 혁명화와 농민들과의 단결은 절실한 문제였다. 그것은 농촌 주민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는 반동의 중심지로 되여 있었으며 무장 투쟁의 근거지가 농촌에 의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간악한 일제는 농촌을 《집단 부락》화하고 거기에 《보갑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농민 군중 전취를 파탄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치하여 김 일성 동지는 유격대의 무장 습격을 농촌의 일제 군경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을

농촌에서 제압하고 집단 부락 내의 무장 《자위단》의 활동을 마비시키거나 그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농촌에서의 통일 전선 운동을 추진시켰다.

장백 지구에서는 적 기관과 어용 단체 간부들을 조국 광복회 회원들로 포치하거나 적지 않은 촌장, 구장, 백가장까지 자기 편에 인입하여 장백 지구를 혁명화하고 조국 광복회 조직망으로 뒤덮게 함으로써 이 지방을 항일 유격 투쟁의 강유력한 근거지로 만들었다.

김 일성 동지의 풍부하고 심오한 통일 전선 사상과 그의 현명한 령도와 전술만이 조국 광복회 운동의 찬란한 승리를 보장하였다.

이 사상, 이 령도, 이 전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의 과거 력사에서 그처럼 극심하던 사분 오렬 상태를 청산하고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일체 반제 애국적 력량을 혁명적 강령의 기치하에 단결시켰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비롯한 조선 인민의 모든 애국적 운동을 하나의 고리에 결속시킬 수 있었다.

* *

통일 전선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사상과 전술, 조국 광복회 운동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해방 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통일 전선 정책의 기초로 되였다.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이 혁명적 업적, 이 고귀한 경험을 계승하여 통일 전선에 대한 정확한 로선과 전술을 명시하고 투쟁함으로써 각계 각층 인민들을 자기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오늘의 력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민족 분렬의 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증대시켰다. 이에 또한 종파 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승세하여 좌우경적인 구호와 언사로써 혼란을 더욱 야기시켰으며 본래의 추잡한 본성을 드러내 놓고 《헤게모니》 쟁탈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틈에 인민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반동들이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상륙과 함께 또다시 준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 혁명 도상에는 실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이 조성되였다.

해방 후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 력량의 단결과 통일을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누가 이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난국을 수습하고 혁명 력량의 단결과 통일을 이룩하였는가? 누가 조선 혁명 앞에 나선 이 엄숙한 시련을 이겨냈으며 조선 인민의 나아갈 길을 천명하였는가? 이 력사적 위업은 오직 장구한 시일에 걸쳐 과감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 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서만 성취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에 개선하여 이러한 정세를 통찰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 민족이 완전히 통일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과 농민 뿐만 아니라 민족 자본가 등 모든 애국적 민주 력량이 일치 단결하여 통일 전선을 형성할 데 대하여 명시하였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 방책과 전술에 따라 우선 당을 강화하며 대중을 전취하며 광범한 혁명 력량을 단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령도하에 각계 각층 인민 대중을 새 민주 조선 건설의 한길로 인도하였으며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과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수립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에 기초한 각 계층과의 통일 전선을 튼튼히 형성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 통일 전선의 형성, 모든 애국적 민주 력량의 결속—바로 이 단결된 힘만이 북반부에서 그처럼 단시일 내에 력사적인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고수 할 수 있었다.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고비들도, 인민의 원쑤들과 최 창익, 박 창옥을 괴수로 한 반혁명 종파 도당들의 그 어떠한 모략과 시도들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인민 대중—그의 붉은 전사들의 단합된 불패의 위력과 투쟁에 의하여 극복되였으며 분쇄되였다.

우리 당의 주위에 하나로 뭉친 이 단결된 힘만이 전후 짧은 수년 간에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업 농업 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급속히 내닫게 하고 있다.

질풍같이 내닫는 천리마—이것은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조선 인민의 창조적 위력의 시위이며 고도의 정치 도덕적 통일의 구현이다. 이 통일과 단결의 힘이 세월을 앞당기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 그 위력의 부단한 장성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강력한 수단으로, 튼튼한 담보로 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민 항쟁은 인민의 단결된 힘이 현대 제국주의의 그 어떠한 책동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조국 통일의 대사변이 다가 오는 오늘 우리 앞에는 더욱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것은 조국 통일의 튼튼한 물질적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그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군중을 쟁취하여 우리 당의 주위에 단결시키는 것이다. 하나로 뭉친 북반부의 강력한 사회주의 력량과 그리고 남반부의 애국적 민주 력량은 우리 당, 우리 혁명의 승리의 원천이며 그의 담보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주민 구성의 력사적 복잡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포섭하여 북반부 인민은 물론 전체 조선 인민을 확고부동한 하나의 힘으로 당 주위에 단결시키는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것을 우리에게 교시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아끼여 전취하는 것은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운동의 본질》인 동시에 도래하는 대사변을 주동성 있게 맞이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조국 광복회 운동과 해방 후 우리의 투쟁 경험이 실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혁명 투쟁의 승리는 인민 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서만 달성된다.

당의 령도하에 하나로 뭉친 힘은 필승 불패이며 그것은 반드시 머지 않은 앞날에 우리 혁명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교양에서 긍정적 모범이 가지는 의의

황 영 식

공산주의 교양에서 결함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매우 중요하며 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상 교양 사업의 전부로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여기에만 의거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없다. 결함과 부족점, 부정적인 것은 우리 현실의 전형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새 것이 지배적이고 그것이 부단히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모범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우리 사회의 전형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비판에만 의거하는 사상 교양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에 교양적 영향이 주로 부정적인 락후한 층에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동무들에게는 소극적 영향밖에 주지 못하고 다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국한될 수도 있다.

당 사상 교양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결함을 나타내지 않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적인 사상 의식과 사업 작풍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전체 당원 대중의 사상 의식을 선진 대렬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공산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라고 교시하였다.

일찌기 웨.이.레닌도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의 산 구체적인 실례와 표본에 의한 대중의 교양이》(전집, 제 28권, 107페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은 우리 사회 제도의 본질에서 흘러 나오는 합법칙적 현상이다. 오늘 약동하는 우리 나라 현실은 부단히 새 것을 창조하고 있으며 모범을 낳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결함과 부족점, 부정적인 것은 새 생활 건설을 위한 우리의 전진 도상에서의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조건하에서 모범의 힘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는 그것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 작용하며 그 힘을 발휘한다.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었던 실례(모범—인용자)의 힘은 토지와 공장들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한 사회에서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그것은 단지 여기에서는 아마도 훌륭한 실례를 본받을 것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생산 조직의 훌륭한 실례는 이 훌륭한 조직을 실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로동의 경감과 소비액의 증대를 수반할 것이기 때문이다》(전집, 제 27권, 253페지).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행정이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평양 제사 공장 천리마 작업반장 길 확실 동무의 모범은 그가 자진하여 옮긴 락후한 작업반을 천리마 작업반으로 발전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은 지금 전국적 범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바 이 사실은 개인적 모범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하나의 집단의 모범이 다른 집단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도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수다히 찾아 볼 수 있다. 례하면 험준한 산중에서 모두가 앓아 눕게 되였을 때 자기의 아픔보다도 동지의 아픔을 더 괴로와 하며 서로 동지들을 도운 중공업 위원회 지질 탐사 관리국 제 9 지질 탐사단원들의 혁명적 동지애의 모범은 남포 유리 공장 주사기 작업반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앓는 동무의 기대를 서로 앞을 다투어 담당하는 미풍을 낳게 하였다.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되는 혁신 운동의 모범은 강한 힘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선 제강소 진 응원 작업반의 발기에 의하여 발단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전국적 범위에서 이 모범을 따르려는 광범한 대중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혁명 전통 교양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과거의 력사적 모범이 역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전체 인민 대중을 교양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과 사업에서 혁명 투사들의 투쟁 모범을 회상하며 그들의 고매한 투쟁 정신에서 힘을 얻으며 그들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혁명 선렬들이 과거에 남겨 놓은 긍정적 모범을 보여 주는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 대중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발휘한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인민적인 사업 작풍, 원칙적인 단결과 동지 호상 간의 두터운 우애심,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등의 고상한 혁명 정신을 본받으며 거기서 거대한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 제도에서 긍정적 모범이 어떠한 큰 힘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우리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의 구체적인 산 모범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왔으며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긍정적 모범이 교양에서 거대한 효과를 낳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긍정적 모범은 우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상 관점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여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직접적으로 명백히 보여 준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옳은 사상 관점과 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만 간접적으로 암시해 줄 뿐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명시해 주지는 못한다. 공산주의 교양은 사상 분야에서 낡은 것을 버리도록 하고 새 것을 얻게 하는 과정으로 된다. 결함에 대한 지적은 낡은 것을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모범은 어떠한 것이 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백한 대답을 준다.

긍정적 모범은 우리에게 리상과 목표를 준다. 나어린 순진한 아동들이 가지는 모방의 심리적 특성과도 같이 사람들이 리상적인 현상을 보면 그것을 따르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법이다. 인류의 위대한 천재들의 형상이 그들을 존경하는 후대의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고

그들이 걸어 온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긍정적 영향을 얼마나 많이 주었던 것인가! 옳은 리상과 목표—이것은 근로자들의 긍정적 행동과 활동을 적극 추진시킨다. 긍정적 모범은 이러한 리상과 목표로 된다. 선진 로동자들의 모범, 집단의 모범, 혁명 선렬들의 탁월한 모범은 생활의 리상으로 되면서 사람들에게 정력을 북돋아 주며 그러한 것을 자기도 해낼 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주며 매개 근로자들의 사상 발전의 전망을 열어 준다.

긍정적 모범이 교양에서 거대한 힘을 낳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만족감과 그것을 따르려는 강한 지향과 충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감동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그 모범을 본받아 옳은 행동을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항시적으로 작용하는 욕망으로 된다. 이럴 때 비로소 품성이 형성되였다고 말한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강한 감정과 결합될 때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긍정적 모범은 바로 이러한 감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긍정적 모범을 통한 교양은 리성과 감정을 결합시키는 교양 방법 즉 감화 교양으로 된다.

전쟁 시기의 실례들이 많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백 번 강조하는 것보다도 리 수복 영웅의 고결한 희생성이 전투원들에게 주는 감명이 얼마나 거대했는가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긍정적 모범에 대한 교양 방법은 비록 결함에 대한 공개적 폭로와 지적의 방법과 대조적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내면적인 자기 비판을 불러 일으킨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거기에 보다 많이 감동되면 될수록 자신의 결함을 더욱 심각히 알게 되며 그것을 더욱 뼈저리게 뉘우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잘 자각할 때 자신을 옳게 개조할 수 있는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은 타인의 모범을 통하여 보다 급속히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인간은—인용자) 거울을 가지지 않고 탄생하므로…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본다. 오직 자기와 비슷한 인간 빠웰에게 관계함으로써 인간 표트르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관계하기 시작한다》(맑스, 엥겔스 전집, 로문판, 제 17권, 60폐지). 긍정적 모범은 이러한 거울로 되는바 이 거울로 자기 행동을 비치고 결함을 뉘우치게 하며 량심을 계발시킬 수 있다. 때문에 결함을 발로시킨 사람에 대해서 그의 부족점을 지적해 주는 동시에 그와 대조적인 우수한 전형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의 결함을 더욱더 잘 알게 하고 그것을 일소하게 된 그러한 실례들이 허다한 것은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폭로와 지적, 결함에 대한 추궁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심각한 사상 개조를 수행하는 매우 효과적인 교양 방도로 될 수 있다.

그러면 긍정적 모범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매개 일'군들이 긍정적 모범이 가지는 위대한 힘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당이 긍정적 모범을 통한 교양을 공산주의 교양의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내놓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교양적 효과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을 결함에 대한 폭로 비판과 유기적으로 옳게 결합할 줄 알아야 한다. 결함은 제때에 시정하는 동시에 모범을 통하여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친절히 알려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긍정적 모범이 도처에서 부단히 산생되고 있다. 여기에서 당 단체들과 사회 단체들 그리고 매개 지도 일'군들 앞에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을 산만 무질서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원칙들에 복종시키면서 계통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이다.

긍정적 모범은 이에 대한 전달과 선전에서가 아니라 이를 본받아 구체적 사업을 조직하는 데서 현실적 힘을 가진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산주의적 품성은 선진 모범을 따르는 실천 과정을 통하여, 건설과 로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실천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의식은 형성 발전된다. 훌륭한 환경과 모범도 실천 활동이 없다면 새 인간을 창조할 수 없다.

긍정적 모범을 통한 교양 사업에서 지도 일'군들 자신의 솔선적인 모범은 큰 의의를 가진다. 우선 지도 일'군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부분적인 지도 일'군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교양자적 역할은 사상 교양 사업을 조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사상 관점, 사업 태도, 작풍, 지어는 개체 생활, 일거일동까지가 하부 일'군들에게 교양적 영향을 주는 데 있다. 만일 지도 일'군이 당 정책 집행에서 철저하다면 하부 일'군들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며 만일 그가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한다면 하부 일'군들도 그를 닮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새싹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대중적인 물질적 힘으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싹은 그것이 시초에는 평범하고 무력하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상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모범과 전형이 창조된다. 따라서 새싹을 지지해 주며 그것을 광범하게 보급하며 정치-리론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사상 사업의 중요한 과업이다.

긍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 교양은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모범은 집단적 성격을 띤다. 개인의 모범도 집단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당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대중 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하고 있는바 대중 운동에서 긍정적 모범은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우리 제도하에서 대중을 고도로 발동시키는 것—이것은 동시에 공산주의적 품성을 광범하게 발현시키는 과정으로 된다.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모든 요구는 긍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 교양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될 것을 필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관하여

김 상 학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거둔 거대한 성과와 그의 력사적 경험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하였으며 새로운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그를 일층 풍부히 하였다.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에 관한 일반적 합법칙성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그를 우리 나라 사회-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과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일제하 조선 사회의 식민지, 반봉건적 성격과 그에 따르는 생산력 발전의 락후성, 계급적 력량 관계에서의 혁명 세력의 압도적 우세와 근로 인민의 높은 혁명적 의식, 국토가 량단된 조건에서 혁명적 민주 기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전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현 정세하에서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 내 국가들간에서의 경제적 원조와 협조—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승리와 생산력 발전과의 호상 관계에서 일련의 특성을 발현시켰다.

그의 중요한 특성은 우선 과도기의 첫 시기로부터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지배적 지위가 확립되였으며 전후 복구 시기에 이미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결정적 승리가 달성된 데서 표현된다. 또한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서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아직 충분치 못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가 달성되였으며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나라의 생산력 발전의 거대한 앙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표현된다.

1

우리 당은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생산 관계를 창설하였으며 그를 강화 발전시켰다.

일제하 조선 사회는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다. 도시에서의 일제의 식민지 착취 관계의 거의 전적인 지배와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 관계는 우

리 나라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되여 있었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략탈 행정에서 기형적인 것이나마 일정한 정도의 현대적인 산업과 운수 시설을 창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불가피적으로 혁명적 로동 계급이 산생되였다.

이것은 일제하 조선 경제에서 낡은 생산 관계와 생산력 간의 타협할 수 없는 모순이 조성되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조선 인민이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한 후 앞으로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을 창설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해방 이후 우리 당은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사회주의에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제 개혁을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당은 나라에 조성된 물질 생산적 전제와 계급적 력량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였으며 쏘련을 선두로 한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강대한 혁명 력량을 타산하였다.

토지 개혁의 실시는 오랜 력사에 걸쳐 농업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되여 온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토지의 근로 농민적 소유를 확립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급속한 앙양을 가져 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업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적 혁명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조치였다. 이 국유화는 비록 자본 일반을 반대하지 않는 민주주의적 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였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유화였으며 중요 산업이 일제 및 예속 자본가들의 소유였던 것만큼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압도적 지배를 가져 왔다.

공업의 압도적 부문과 운수, 체신, 금융 등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들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거의 전적인 지배는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국내의 혁명적 계급의 강대한 력량과 쏘련 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은 민주주의적 제 개혁을 가장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것은 앞으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승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 변혁은 완전하게 되면 될수록 이 새 투쟁은 더 속하게 더 광범하게 더 순수하게 더 결정적으로 전개》(전집, 조선문 판, 제 9권 1분책, 200페지)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한 후 우리 혁명이 전체성으로는 아직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단계에 있었으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강화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것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북반부 인민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인 동시에 앞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되기 때문이였다.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에 있어서 락후하고 파괴된 나라의 생산력을 복구하며 새로운 자립적 토대 우에서 인민 경제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길에는 막대한 곤난이 있었다. 그러나 과도기 첫 시기에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인민 경제의 복구 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완수하였다.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나라의 생산력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추동하에 급속하게 복구 발전되였으며 식민지적 편파성도 적지 않게 퇴치되였다.

과도기 첫 시기로부터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지배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광범한 작용, 인민 경제의 계획적 운영,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합리적 리용, 근로 대중의 로력적 열의의 앙양을 조건 지었으며 나라의 생산력의 매우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 공업에서의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은 그의 존재 형식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업 생산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 그 자체를 현저히 제고케 함으로써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강화하였다.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상품 류통 분야에서도 발생 발전하였다.

사회주의적 상업은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동맹을 공고히 하여야 할 과도기의 중요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적 공업의 적극적 지원하에 개인농 경리에 기초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그것은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소상품 생산자들을 점차 사회주의 경제권 내에 인입시켜 왔다.

도시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인 지위를 차지한 조건하에서 소농 경리는 자본의 착취하에 방임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산력 발전은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 소상품 경리는 생산력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명확히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과도기 경제 발전에서 대규모적 사회주의적 공업과 손로동에 기초한 분산된 개인농 경리 간에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와 소상품 경리 형태 간의 모순에서 표현되였으며 또한 현대적 대규모 공업과 손로동에 기초한 개인농 경리 간의 모순에서 표현되였다.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공업의 급속한 발전 템포는 령세적인 개인농 경리에 기초한 농업의 완만한 발전 템포를 훨씬 릉가하게 됨으로써 이 량자 간에는 조만간 심각한 모순이 조성될 것은 필연적인 것이였다. 인민 경제의 물질적 생산의 량대 부문에서의 이 모순은 이미 전쟁전 평화적 건설의 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후 시기에 사회주의적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이 모순은 더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되였다. 령세한 개인농 경리는 전쟁 기간에 심대한 파괴를 입은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와 부족한 로동력 및 축력을 가지고서 도저히 대규모의 사회주의 공업을 따를 수 없었다. 또한 전후 시기에 긴급하게 제기된 식량 문제와 빈농민 문제는 개인농 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출로는 레닌적 농업 협동화의 길이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 전 시기와 전쟁 기간을 통하여 일정한 준비적 조치를 취하여 오던 농촌 경리 협동화의 혁명적 과업을 전후 시기에 들어 서면서 현실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전면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때에 우리 농촌 경리에는 아직 손로동에 기초한 낮은 기계 기술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광범한 창설은 인민 경제 전체에서 조성된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는 것이였으며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손로동에 기초하는 낮은 기술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개인농에 비하여 생산의 장성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인 앙양을 위한 기술적 개건의 결정적 전제로 되였으며 생산력 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우리 당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 발전의 합법칙성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농업 협동화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 선 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개인 상공업의 비중은 결코 큰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과도기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개인 상공업을 제한 리용하고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그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신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적 력량의 지도적 역할이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개인 상공업에 대한 리용 제한 정책은 락후하고 파괴된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도움으로 되였으며 로동 계급이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투쟁과 동맹을 통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강화 하는 중요 방도로 되였다.

사회주의 공업의 압도적 우세는 개인 기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와 같은 방도의 수행을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되였다면 농업 협동화의 완전한 승리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조건 지었다.

2

우리 나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거대한 앙양을 위한 결정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전후 인민 경제의 복구 시기에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결정적 승리가 달성되였으며 그 후 얼마 안 되여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로 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사회주의적 호상 방조의 관계, 로동에 의한 분배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

다. 이것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 본질상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회에 충분히 상응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그 때에 나라에 조성된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였으나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는 아직 미약하다》(《모든 것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나 사회주의의 물질-생산적 토대는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호상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리론적 및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한 그때에 공업 부문에서는 기술적 개건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을 뿐이였으며 농촌 경리에서 현대적 기계 기술의 도입은 아직 미약한 것이였다. 또한 나라의 생산력의 중요한 요소로 되는 기술 인재의 해결도 그의 기초를 닦은 데 불과하였다.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나라의 생산력의 락후성은 아직 충분히 퇴치되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은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에 충분히 상응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에 모순이 조성되였다. 물론 이 모순은 생산 관계의 모든 측면들과 생산력의 모든 요소들 간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모순은 아니다. 이 모순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측면들(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방조, 로동에 의한 분배 등)과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기본적 요소들(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와 그리고 또한 일'군들의 문화-기술적 수준)과의 사이에 조성된 모순이였다.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이 조성되였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경제 발전 행정에서 생산력 발전에 따라서 생산 관계의 이러저러한 낡은 측면들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산 관계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 생산 관계의 그 어떤 측면들(례컨대 경리의 규모, 관리의 형태, 로동에 의한 분배의 실현 형식, 로동 조직의 제 형태 등)은 생산력의 새로운 발전에 따라서 부단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생산력 발전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현 시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변증법은 복잡한 모순의 통일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승리한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간의 모순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단히 발전하는 생산력의 수준과 이미 그에 부합되지 않게 된 생산 관계의 이러저러한 개별적 측면들 간의 모순이 동시에 병존하여 있을 수 있다는 데서 표현된다.

생산력의 보다 급속한 발전은 전자의 모순을 해결하는 기본적 방도로 된다면 후자의 모순은 바로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이며 생산 관계의 개선에 의하여 해결된다.

그러면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에 조성되는 모순들 중 그 어느 것이 기본적 의의를 가지는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이 기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이 모순이 주로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본질적 측면들과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기본적 요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모순이며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된 당면한 과업—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기본 고리로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앞에 제기된 가장 기본적인 과업은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문화 혁명을 실현하는 데 있다》(《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현 시기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주요한 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 경제 토대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현 시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성된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이 모순은 결코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적응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조성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우리의 생산력 발전의 절실한 현실적 요구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며 승리한 선진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위하여 광활한 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바로 사회주의하에서 생산 관계의 능동적 역할과 그의 상대적 자립성에 관한 레닌의 교시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현실에 적응하게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레닌은 1923년 1월, 《우리 혁명에 관하여》라는 론문에서 《로씨야는 사회주의가 가능할 그와 같은 생산력 발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한 제 2 국제당의 《리론가》들을 론박하면서 그것이 요구된다면 《…어째서 우리는 먼저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일정한 수준을 위한 전제 조건을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연후에 로농 정권과 쏘베트 체제에 의거하여 다른 제 국민을 따라 가도록 전진할 수 없는가》(레닌, 《철학 연구자들을 위한 론문집》, 조선문 판, 332~335페지 참조)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 계급의 력량이 강대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이 앙양된 조건에서 그리고 특히 강대한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존재하는 현 조건하에서 레닌의 이 교시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레닌의 이 교시는 우리 당의 혁명적 실천에 의하여 빛나게 확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달성된 조건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기초를 급속히 강화하며 일'군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키는 것이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공업과 농업을 포함한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 기술적 개건, 기술 혁명을 수행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을 제기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는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이 거대한 력사적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조건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토대의 공고화는 직접 생산력 발전에 강력한 반작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상부 구조의 강화 발전을 통하여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켰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한 결과 로동 계급 독재의 계급적 지반은 더욱더 강화되였으며 로농 동맹은 새로운 사회 경제적 기초 우에서 강화되였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전체 근로 대중의 생활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고 있으며 근로 인민들은 낡은 사상 의식에서 해방되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의식 개변은 그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의 제고와 함께 기술 혁명을 급속히 추진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외래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과 침략자들과의 가렬한 투쟁 행정에서 단련되였으며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된 조선 인민은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그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새 사회 건설의 장엄한 투쟁에서 무비의 혁명적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이 높은 혁명적 의식과 적극성은 나라의 생산력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근로 대중의 혁명적 적극성에 기초하여 나라의 생산력이 아름다운 청춘의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과 기술 혁명 및 문화 혁명이 전례 없는 앙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의 년 평균 증가 템포는 42%에 달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하게 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의 년 평균 증가 템포가 실로 44.6%에 달하였다. 이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한 높은 생산력 발전의 합법칙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한 정도에서 선진 기술로 장비된 중공업 기지가 개건 강화되였으며 경공업 기지도 창설되였다. 과거에는 극히 보잘 것 없는 상태에 있었던 기계 제작 공업도 나라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을 기본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이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확립되였다.

1959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약 19배에 달하였고 해방 전 최고 수준을 약 6.5배나 릉가하였으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력, 석탄, 쎄멘트, 화학 비료 등 중요 공업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은 이미 일본의 그 수준을 따라 잡게 되였다.

농업 생산력도 급속한 발전을 보았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전기화에서 결정적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앞으로 3～4년 내에 기본적으로 완성될 것이 예견된다. 농촌 경리에서 알곡의 단위당 수확고는 급속히 제고되고 축산 기지가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성과는 농업 협동화의 승리에 기초함과 함께 농촌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의 적극적 지지와 방조에 의하여 보장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인민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이 청산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이미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력사적 과업은 빛나게 해결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을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확고히 축성하며 일'군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는 과업이 계속 우리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없이는 승리한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은 해결될 수 없다.

3

사회 생산력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단한 발전 속에 있는 것처럼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도 부단한 발전과 완성화의 길을 밟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생산력의 발전에 적응하게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을 변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 관계의 이러저러한 측면들(경리의 규모, 관리 형태, 사회주의적 분배의 실현 형식, 전문화와 협동화,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제 형태 등)은 생산력 발전의 매 결음마다에서 제때에 신속히 변화 발전되여야 한다. 이것이 제때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산력 발전과 생산 관계의 일부 낡은 측면들과의 모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생산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통합 이전의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비록 그 규모가 작았다하더라도 그의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여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선진적인 생산 관계로 되였으나 그와 동시에 이 협동 경리는 그 규모가 작은 점에서 농촌 경리의 기술 혁명 즉 현대적 기계화와 전기화 및 대규모의 수

리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농업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 농업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농업 협동 조합의 통합 문제를 경제 발전의 절실하고도 성숙된 과업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를 단시일 내에 완성시켰다.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비단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과 공업 및 상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 관리 형태의 개편은 지방 정권 기관과 기업소의 역할을 현저히 제고시켰으며 경제 관리 사업에서 대중의 참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생산 내부의 예비들과 지방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소비 협동 조합 상업의 농업 협동 조합에로의 이관은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면서 나라의 생산력 특히는 농업 생산력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 하였다.

또한 공업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 특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가 강화 발전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형태들은 생산력 성격과 그의 발전 수준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더욱더 개선 발전되고 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 일'군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의 제고 즉 생산력의 두 요소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쟁 형태의 부단한 발전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 제 부문에서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의 구체적 실현 형식의 부단한 개선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 제고케 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력의 새로운 급속한 발전을 위한 요구에 의하여 생산 관계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에서 새로운 변혁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생산력의 더욱 새로운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　　*

오늘 우리 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건설의 첫 단계의 과업—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현실적인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당면한 이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아주 짧다고 말할 수 없는 일정한 기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나라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이 력사적 과업을 기본적으로 결속 짓는 것을 그렇게 먼 장래의 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형제적 나라 인민들과 어깨를 같이 하여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회 발전의 두 단계인 동시에 그 발전의 부단성에서 서로 련관되여 있는 두 개의 계단이다. 이 두 개 계단의 진행 과정은 매개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요컨대 이 두 개 계단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는 이미 앞으로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과 관련된 준비적 조치들, 공산주의의 맹아적 요소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 생활

신 덕

인민들의 생활에는 그 어떤 경계표와도 같이 새로운 력사적 시대를 열어 주는 그런 날들이 있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8. 15는 바로 이러한 날이다.

그 후 15년이란 짧은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얼마나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났는가.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우리 나라는 새 힘이 약동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되였다. 국가 관리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못 가졌던 인민, 오직 가혹한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 짚신밖에는 신발을 모르고 그스름 냄새 풍기는 오막살이 집에서 굶주려 살던 인민들의 생활이 오늘은 어떻게 되였는가.

오늘의 우리 인민은 자신이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조직하는 그런 인민이다. 우리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국가의 높은 연단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하여 얼마나 훌륭하게 토의들 하고 있으며 얼마나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세계인 일본에서 살던 수십만 동포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적들의 비인간적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 오고 있다. 남반부에 고향을 둔 동포들까지도 한사코 북반부로 돌아 오고 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세계를 버리고 공화국 북반부로 오게 하는가?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조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더는 참지 못하여 지금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항쟁에 일떠 섰다.

무엇이 남반부는 헐벗고 굶주리며 피흘리고 있을 때 북반부는 인민의 락원으로 될 수 있게 하였는가?

세계에는 지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제도가 대립되여 있다. 우리 조국의 남북에도 이렇게 되여 있다. 오늘의 남북의 판이한 정세는 바로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제도가 인민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하지만 우리 제도,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어떻게 좋은가를 더욱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조국을 더 한층 사랑하고 일을 더욱 잘하게 될 것이며 우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일이 사람을 찾는 나라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우리 제도하에서는 극히 평범한 일로 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우선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재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고 보람차게 로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일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자도 걸인도 류랑 고아도 없어진지 오래다. 수십만,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굶주린 창자를 안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업을 없앤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거대한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후 불과 몇 해 동안에 해결되였다. 이 얼마나 위대한 전변인가.

그러나 이미 행복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일터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힘껏 마음껏 일할 수 있다

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끔 잊어 버릴 정도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방 전 우리 인민들이 정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남부녀대하여 만주로 일본으로 흩어져 갔던 것도, 오늘 수백만 남조선 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일터가 없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전체 주민의 거의 3분의 1이 실업자들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자본주의의 왕국》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미국에는 지금 400만 이상의 완전 실업자와 약 1천만 명의 반 실업자들이 있다.

부르죠아지의 대변자들은 실업이 마치도 인구의 증대에 의한 자연 법칙인듯이 떠벌리고 있으며, 남조선의 괴뢰 도당은 이러한 잠꼬대로써 천인공노할 자기들의 배족적 《이민》 책동을 변명하려 하고 있다.

실업은 바로 자본주의 제도의 산물이며 고질이다. 자본주의는 나날이 농민, 수공업자 기타 소시민들을 몰락시켜 무산자로 만든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만 잉여 가치의 원천인 로동력의 소유자로만 보며, 생산의 목적이 인민의 수요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개인의 리윤 추구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상실하고 무산자로 전락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본가들이 다 채용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채산이 맞는 한에서만 로동자를 채용하고 생산을 낸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를 위하여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로동자 즉 자본의 가치의 자기 증식에 복무하는 로동자만이 생산적이다》(자본론, 제 1권 2분책, 조선로동당 출판사 판, 184페지)라고 말했다.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선발된 부분》만이 일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초과 리윤을 얻는 데 최대의 관심을 돌리는 자본가들의 활동 과정은 또한 로동자를 기계와 바꾸는 과정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로동자들이 가두로 쫓겨나 실업자의 대렬을 확대한다.

사람들이 굶주리건 헐벗건 그것은 자본가, 지주들이 알 바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허덕이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동 시장을 압박하여 자본가들로 하여금 취업 로동자들의 임금을 로동력의 가치보다도 훨씬 낮게 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제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로동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확보하여 준다. 사회주의 제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일터를 주며 매 가정과 매 개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 준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찾고 있다. 실업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로력의 절약, 로동력의 합리적인 리용이 문제로 되며 로력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로동에 참가시키는 것이 문제로 된다. 우리 인민들은 벌써 실업이란 말조차 잊어 버릴 형편이다. 전문, 대학을 졸업하는 일'군들과 기능공들을 아무리 양성해 내여도 모든 생산 직장, 건설장, 문화 기관들의 점점 더 늘어 가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인민 경제와 민족 문화의 발전은 더욱 높은 기술과 기능, 더 높은 전문 지식과 일반 지식을 소유한 근로자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하염없이 거리를 헤매던 실업의 쓰라림도, 남부녀대하고 류랑 방황하던 슬픔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옛'일로 되였다. 사람마다 힘과 재간에 맞는 일터가 있고 래일에 대한 근심이 없는 이것이 어찌 행복이 아니겠는가. 쓰레기통 뒤지기와 누더기 장사, 이것이 이국살이하던 수십만 재일 동포들의 연명의 길이였다. 조국은 오늘 그들에게 첫째로 안정된 일터와 생활을 보장해 준다.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것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가? 우리 나라에는 지

주도 자본가도 없다. 전체 인민이 모든 생산 수단과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토지도, 지하 자원도, 공장, 광산, 철도, 항만 기타 모든 생산 수단도 은행, 통신, 상업, 수매 기관들도 모두가 국가의 소유 즉 인민의 소유이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의 리윤을 위하여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스스로 로동하며 자체로 생산을 조직하며 경제를 운영한다.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로동에 참가하고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모두가 더 잘 살게 되는데 《실업》이란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민이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과 건설, 교육과 문화, 보건 시설들이 자본가, 지주들의 채산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 생산의 목적 자체가 경제와 문화 사업의 부단한 발전을 요구한다.

레닌은 《오로지 사회주의만이 어떻게 하면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편하게 하고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학적 고려에 기초하여 생산품의 사회적 생산 및 분배를 광범히 확대하며 진정으로 그것을 통제할 가능성을 줄 것이다》(전집, 제 27권, 375페지)라고 강조하였다.

더우기 과거의 락후성을 하루 속히 털어 버리기 위하여 맹렬한 기세로 달려 나가고 있는 우리 나라에는 무진장한 일들이 헌신적 로력을 기다리고 있다.

최단 기간에 전체 인민들이 이밥에다 고기를 먹고 문화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자는 당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일터로 가득찬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보라! 얼마나 많은 과업들이 근로자들을 부르고 있는가. 이 과업을 달성하면 우리는 부단히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한없이 많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터를 보장함으로써 먹고 입고 사는 데 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로동의 열매는 모두다 인민을 위해 돌려지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비록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정력과 재능이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 놀고 먹는 자들에게 모든 복리를 주는 반면에 수백만 대중은 죽도록 일하면서도 헐벗고 굶주려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합리, 이러한 비극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그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돌려지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의 결과가 고스란이 인민에게로 돌려지는 것은 물론이다. 로동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으며 더 많이 일하고 더 잘 일한 사람에게는 더욱 훌륭한 생활 조건이 보장된다.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한만큼 그의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범한 일이지만 극히 위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과거 오래 동안 동경해 왔으며 혁명 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싸운, 바로 착취 없는 사회가 우리 세대에 와서 현실로 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머리 우에는 지주나 자본가가 없으며 우리 인민이 바로 생산 수단의 주인이자 동시에 로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 로동의 결과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본주의하에서 로동자들은 로동 시간의 대부분을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데 소비하고 로동 시간의 극소부분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으며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착취로부터 해방되여 자유롭게 일하며 일한만큼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행복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해방 전 우리 로동자들이 30전 내지 50전의 값싼 임금으로 감옥같은 로동 직장에서 12시간 내지 16시간 이상의 강제 로동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민들은 적은 땅쪼각에 매달려 수확고의 50% 이상, 때로는 80~90%까지 소작료로 지주에게 물지 않으면 안 되였다.

오늘도 남조선 로동자들은 최저 생계비의 3분의 1도 못 되는 기아 임금을 받으면서 12시간 이상 20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얼마 안 되는 자본가들이 국민 소득에서 약 60%나 되는 몫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후 기간에 생산 사고로 인하여 년 평균 1만 5,000명이 사망하였고 200만 명 이상이 부상 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행복, 사회주의 제도가 가져다 주는 로동과 생활의 행복을 온 몸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민의 복리에 대한 배려, 이것은 당과 정부 활동의 최고 원칙이다. 로동자들의 화폐 임금은 전후 기간에만 하여도 4차나 대폭 인상되여 1959년에는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 3.7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실질 임금은 약 1.9배로 장성하였다.

물론 우리는 인민의 생활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배려를 이에만 국한시켜 볼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거의 무료나 다름 없는 헐값으로 받고 있는 식량, 세대 당 월 평균 생계비의 3.4%밖에 안 되는 주택 사용료와 2.3%에 불과한 연료 및 전기료 이런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면 먹고 입고 사는 데 걱정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후대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병나면 제때에 치료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 근로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으며 사회 보장으로 휴양을 한다. 해방 전 절대 다수가 문맹이였고 병나도 약 한 첩 써 보지 못하고 죽어 가던 우리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제도는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받는 로임 이외에 국가로부터 허다한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가 지출하는 사회 문화 시책비만 보아도 매 세대당 로동자, 사무원들의 월 평균 로임의 70% 이상에 해당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로동의 결과로서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물질적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실로 근로자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모든 근심 걱정을 덜어 주었으며 인간으로서의 모든 소원을 풀어 주고 있다. 사회주의— 이것은 가장 높은 진정한 인도주의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는 약간의 민족 보위비와 행정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그들의 수입과 사회 문화 시책비 지출을 증대시키며 생산을 확장하는 데로 돌려진다.

금년도 공화국 정부 예산 지출에서 인민 경제 및 사회 문화 시책비와 민족 보위 및 행정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5%, 6.5%이다. 이에 비하여 남조선 괴뢰 정부 금년도 예산에서 소위 《산업비》와 《군사 경찰 및 행정 관리비》의 비중은 각각 6% 및 94%를 차지한다. 금년도 괴뢰 정부 예산 수입에서 직접 간접으로 되는 조세 수입이 93%를 차지한다면 공화국 정부 예산 수입에서는 주민 세금이 2.1%에 불과하고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이 95.3%에 달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은 각종 농산물 수확고의 평균 10%의 현물세를 바치는데 이것이 국가 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지나지 않는다.

철두철미 인민을 수탈하여 한 줌도 못 되는 착취자들만이 썩어지게 잘 사는 제도, 그것이 자본주의라면 수백 수천만의 인민이 다같이 일하여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제도는 바로 사회주의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자기 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며 어떤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이 자각으로 하여 우리의 로동은 유쾌하고 희망에 찬 로동이며 영예롭고 신성한 것으로 된다. 10년을 하루와 같이 무사고 무결근으로 일하는 사람들, 로력의 위훈으로 하여 영웅의 칭호를 받는 사람들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찾아 볼 수는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 발전의 비상한 속도를 부인할 수 없게 된 반동들은 우리의 로동을 《강제 로동》이라고 비방하는 것으로써 정말로 강제 로동에 허덕이는 자기 나라 근로자들을 기만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잡교대가 오늘날 그 누구도 기만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인민의 로동은 그 의의와 결과에 있어서 보람차고 영예로운 로동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부단히 일을 헐하게 해 주기 때문에도 유쾌하고 성수 나는 로동이다.

실로 사회주의 제도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도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집인 기술 진보를 장애하는 모든 조건들을 제거하였으며 부단히 새 기술을 완성시키고 그 성과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리용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과학과 기술이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발전되고 리용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로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동반하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오직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절약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을 더욱더 헐하게 할 따름이다.

쏘련에서는 생산이 기계화, 자동화의 부단한 발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현저히 헐하게 하면서 금년 내에 모든 분야에서 7시간, 6시간 로동일로 넘어 가게 되며 1964년부터는 6시간, 5시간 로동일로 넘어 가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에 가서는 부의 척도로 되는 것은 벌써 로동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맑스는 말했다. 로동이 헐해지고 로동일이 단축되는 것 즉 생활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수입이 높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의 지표로 된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오래 살게 되는 법이다. 해방 후 15년 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주민들의 사망률은 58%로 줄었으며 평균 수명은 15년이나 길어졌다.

이처럼 사회주의 제도는 이 땅 우에 생활의 락원을 마련해 주었으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로동이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나라

해방 전 우리 인민은 조국이 없는 백성의 설음과 무권리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재일 동포들의 무권리와 비참한 처지도 그들이 아직 진정한 우리 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사회주의적 조국을 건설한 우리 인민은 다만 로동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물질적 복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리와 자유도 다 가지고 있다. 인민이 자기들의 진정한 조국을 가지고 주권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한다는 이것이 어떤 행복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인민이 스스로 주권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모든 국가 자원과 로동의 열매를 자기들의 복리를 위하여 점유하고 리용할 수 없으며 또 모든 부원과 자기들의 로동의 열매를 스스로 점유하고 리용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주권을 유지 공고화할 수 없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있는 데서만 인민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모든 권리와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언론, 출

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도,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도 이것을 그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악하고 있으며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수한 인민의 아들딸들을 선출하여 주권 기관을 구성하며 모든 사람이 국가 관리와 경제, 문화 건설에 주인으로서 참가한다.

모든 생산 수단과 국가 주권이 인민 자신의 손에 장악되여 있으며 경제 및 정치 생활에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여 있다는 이 사실은 개성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담보로 된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실로 우리 인민에게 개성의 자유로운 개화 발전을 위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생산과 건설, 과학과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기술 기능과 보다 많은 창의 고안들과 합리화 제안들, 보다 훌륭한 발명과 연구 성과들을 고대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의 모든 령역은 보다 많은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의 직장과 가두의 써클들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예술 창조에 참가하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국가와 경제의 모든 일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에 의하여 운영되며 관리되고 있다. 녀성들도 자기의 재능 대로 경제를 관리하며 국사에 참여한다. 청년들도 처녀들도 정치를 론하며 국가 계획을 토의한다.

우리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 인간으로서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하여 또 무엇이 부족하랴! 우리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재능과 지혜,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또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사회주의 제도는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매 개인이 자기의 정력을 있는 대로 기울이며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발전시킬 모든 조건을 지어 주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하여 최대의 배려를 돌리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삶의 보람, 인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우리 인민은 원래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해방 전에 우리들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민족 예술은 멸망 상태에 처해 있었다. 남조선에서는 오늘도 그러하다. 그런데 해방된 북반부에서 우리 인민의 예술은 《황금의 예술》로서 세계적 평가를 받게 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만 비로소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부르죠아 사회의 법칙은 소멸되고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벗으로, 형제로 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의 생활과 운명에 대하여 자신만이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어찌 곤난할 때 서로 돕지 않을 수 있으며 서로 협조하여 다같이 잘 살기를 원치 않으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단결하고 협조할 수 있는 새 형의 인간으로 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단결과 협조의 힘을 이겨낼 자는 없다. 당과 정부의 주위에 뭉친 우리 인민의 의지와 힘을 그 누구도 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

자본주의 사회에는 래일이 없다. 거기서는 생산력은 답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나날이 더 심각한 빈궁과 실업에 허덕이고 있으며 공황과 혁명의 그림자는 부단히 자본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주의만이 양양한 미래를 가진 생기발랄한 사회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언제나 보다 광명한 래일을 약속한다. 오늘의 전망은 래일의 현실로 되고 래일은 또 새로운 전망을 안겨 준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늘의 행복을 즐길 뿐만 아니라 보다 훌륭한 래일에 대한 희망으로 차 있다. 모든 사람들의 보람찬 로동에 의하여 생산력은 부단히 장성하고 생활은 날로 향상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의 한 고지를 점령하고 보다 높은 새로운 고지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전투에서 참모부—당은 언제나 보람 있고 뚜렷한 목표로서 우리들을 지휘하며 고무한다. 우리들 앞에는 6~7년 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할 방대한 강령이 서 있다. 이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발전된 공업국으로 전변될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향하여 새로운 진군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무한한 우월성과 무궁한 장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월성과 광명한 미래도 그 자체로서는 아직 가능성에 불과하다. 당과 인민의 노력이 이것을 현실성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어떠한 전투도 능숙한 지휘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당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리익과 행복에 대한 고려로부터 출발하여 백전 백승의 무기—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언제나 우리 인민을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한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결속하여 그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는 우리의 모든 승리와 행복의 담보이다.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는 것은 긴장된 로력과 투쟁의 과정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의 전진 도상에는 허다한 애로와 난관이 있다. 간악한 원쑤들은 남녘 땅에서 좀처럼 물러 가려고 하지 않으며 형제들은 삶의 권리를 위해 피흘리며 싸우고 있다.

우리의 제도는 우월하고 우리의 승리는 크지마는 우리는 아직 태평가를 부르며 호화롭게 살 때는 아니다. 광명한 래일을 앞당기며, 남반부 형제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곤난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서로 돕고 잘 협력할 줄 알아야 하며 검박하게 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절약하며 검박하게 생활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고유한 품성이며 더우기 오늘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긴요한 것이다. 남의 로동으로 치부하는 부르죠아들에게는 검박한 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로동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검박한 생활은 보다 훌륭한 래일을 위한 밑천으로 된다.

대중의 높은 열의는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한다

김 왈 수

의식이 제고되니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우리 공장에서는 금년 초부터 자동차 생산이 계속 비약적으로 장성하는 새 국면이 나타났다. 다음의 수'자가 이를 잘 말하여 준다.

	1월	2월	3월	4월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의 장성 (%)	100	162.6	307.8	316.8
자동차 생산 대수의 장성 (%)	100	118.3	300	350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지난 3월은 우리 공장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있어서나 자동차 생산 대수의 장성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3월에 자동차 대당 생산 시간은 년초에 비하여 1,500 여시간이나 단축되였으며 자동차 생산 대수는 2월에 비하여 불과 1개월 기간에 2.5배 이상으로 장성되였다.

3월을 계기로 하여 일어난 자동차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 어떤 새로운 기계 설비의 도입이나 추가적인 로력 투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있는 설비와 있는 로력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한 결과 이룩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을 높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이 생산하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우리 공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첫 성과이다.

사실 금년에 3,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자는 목표를 내세웠을 때 일'군들 속에서는 각이한 견해와 태도들이 나타났다. 절대 다수 근로자들은 현존 난관을 능히 극복하고 당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적극 동원되였으나 일부 지도 일'군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새 설비와 더 많은 기능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는 바로 일'군들의 각이한 사상적 준비 정도의 반영이였으며 새 것과 낡은 것, 선진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 간의 투쟁의 반영이였다.

이런 정세하에서 공장 당 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높이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표현된 소극적인 사상 관점을 극복하는 것을 제 일차적 임무로 간주하고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토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였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지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일'군들 속에 침투하는 한편 대중의 창발성을 억제하는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직장 당 단체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면서 공장 당 위원회가 직접 생산에서 관건적인 문제를 틀어 잡고 그를 대중 운동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심입시켰다.

근 1개월 반에 걸쳐 진행된 토의 사업이 심화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의 의식은 더욱더 제고되였다. 그들은 사업을 혁신시킬 데 대한 수 많은 창발적 의견들을 제기하고 그를 해결하는 투쟁에 앞을 다투어 나섰다.

로동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은 모든 일'군들을 비상히 흥분시켰으며 그들의 의식을 전례

없이 앙양시켰다. 소극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일부 사람들도 만일 대중의 열의를 믿고 일을 잘 조직하기만 한다면 능히 3,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생산해 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지도 일'군들의 임무는 번질나게 회의나 열고 《하자》고 호소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사상을 계발하고 그를 물질적 성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였다.

혁명적 의식이 고도로 높아진 로동자 대중은 기술적 혁신과 기능 수준의 제고에서, 생산 조직과 로력 조직의 합리화 그리고 예비의 동원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보다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였으며 관리 일'군들은 기업 관리 수준을 부단히 높여 로동자들이 달성하는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열성을 내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공장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급격히 제고시켰다.

의식은 어떻게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작용하였는가

금년 초까지만 하여도 우리 공장의 자동차 생산에서 결정적으로 걸리고 있던 것은 바로 시린다 브록크, 크랑크축을 비롯한 중요 부속품들의 생산이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였다.

특히 자동차의 심장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린다 브록크와 크랑크축은 가공하기가 극히 복잡하고 누구 하나 생산해 보지 못한 생소한 부속품이였다. 깎아 놓으면 열에 아홉 개는 오작품이 되여 못 쓰게되자 일'군들 속에서는 일종의 《신비주의》까지 발생하였다. 이 부속품들의 생산을 증대시키자면 우선 기술 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서 이 문제는 외부로부터 설비와 기술을 받아 들여 해결할 수는 없었다. 당 위원회는 오직 대중의 집체적 지혜를 발동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인정하였으며 그의 해결에로 대중을 동원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실지 기계를 깎는 로동자들에게 자동차 생산에서 시린다 브록크와 크랑크축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으며 《크랑크축과 시린다 브록크가 한 개씩 있으면 자동차 한 대가 더 나온다》는 것을 해설하여 주었다.

김 순형 천리마 작업반원들이 수다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면서 크랑크축 가공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당 단체는 그들의 창발성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지도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을 모두 현장에 접근시켜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옳게 조직하면서 로동자들이 제기하는 기술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지도와 기술이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결합되자 사람마다 자기 맡은 공정들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되였으며 해결 방도를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결국 2월 말을 계기로 시린다 브록크와 크랑크축 가공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그의 가공 시간도 현저히 단축되여 현재에 이르러 시린다 브록크의 가공 시간은 년초의 62시간으로부터 40시간 30분으로, 크랑크축의 가공 시간은 년초의 55시간으로부터 28시간으로 각각 축감되였다.

이렇듯 기술적 혁신은 가장 곤난한 고리로 간주되였던 부문들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일어났다. 결과 자동차 생산에서 걸리고 있던 일련의 부속품 문제가 점차 해결을 보게 되였다.

다른 부문들에서도 역시 대중적인 기술적 혁신 운동이 일어났다. 2월 말경에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협력하에 제작 도입되여 50배 이상의 기록적 능률을 낸 라제타 수관 만곡기를 비롯하여 허다한 크고 작은 기술적 혁신들이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이 련속적인 기술 혁신 운동에 참가하였다.

3월 1개월 간에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에 기초하여 진행된 기술적 개조만 하여도 150 여건에 달하는데 이것은 작년 년중을 통한 창의 고안 도입 건수와 같다.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에 의한 새 기술은 모두다 간단하고 도입하기 쉬우며 리용하기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입되면 즉시로 그의 효과가 발휘되였다. 우리가 기술 문제의 해결을 몇몇 기술 일'군에게만 맡기고 있었다면 이러한 혁신적 성과를 그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룩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이다.

우리 공장에서 지난 기간에 일어난 기술적 혁신이 외부로부터의 새 설비의 인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수십 개의 부문에서 직접 그를 담당하고 있는 수천 명의 로동자 대중 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창조되고 도입되였다는 사실은 기술적 혁신에서 대중의 높은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것을 명백히 증시하여 주었다.

대중의 높은 창조적 적극성은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생산 조직과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발휘되였다.

로동자들의 열의가 앙양됨에 따라 대중 속에서는 자기 맡은 부문에서 주인답게 일하는 태도가 배양되고 모든 일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앞을 다투어 참가하려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날로 높아 갔다. 이에 따라 로동 조직을 개선할 데 대한 새로운 제의가 로동자들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례하면 청년 직장에서는 볼반으로 구멍 뚫기 작업에 미숙련공이 배치되여 하루에 두 개밖에 뚫지 못하고 전반 공정에 지장을 주던 것을 기능공들이 자진 담당하고 40개씩 뚫어 약한 고리를 퇴치하였다.

또한 로동자들은 《기능 급수 한급 더 올리기 운동》, 《1일 1건 배우기 운동》 등 광범한 대중 운동을 통하여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서도 높은 열의를 발휘함으로써 금년 1.4 분기 기간에 공장적으로 평균 기능 급수가 0.4급 더 높아졌다. 우리 공장에서 한 분기 동안에 로동자들의 기능 급수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높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 예비의 탐구 동원에서도 큰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 청년 직장 로동자들은 시린다 브록크 수압 시험 공정을 선행시키고 그 가공에서 기포 오작으로 내버리던 것을 재생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월 100 여개 가공하던 데로부터 4월에는 240개나 가공하였다.

우리가 체험한 이 모든 사실은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이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경험을 얻게 되였다.

정치 사업을 현장에서

지난 시기 우리 공장에서의 지도 사업은 《사상 동원 단계》와 《집행 단계》가 인위적으로 구분되여 있었다. 소위 《사상 동원 단계》는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군중 강연회나 《궐기 대회》를 하는 단계였고 《집행 단계》는 주로 행정 사업을 통하여 《당 정책을 실천》하는 단계로 되여 있었다.

결과 정치 사업은 몇몇 지도 일'군들이 집회에서만 하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으로 되여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당 정책의 실지 집행을 위하여 깊이 파고 들지 못하였다.

지도 사업에서의 이러한 낡은 《틀》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이후 특히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 이후 결정적으로 마사지기 시작하였다. 오늘에 와서는 모든 지도 일'군들이 누구나 다 작업복을 입고 생산 현장에서, 기대 옆에서 정치 사업을 한다.

지도 사업에서 일어난 변혁의 내용은 정치 사업을 하는 무대와 방법이 달라졌다는 데 있으며 그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데 있다.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지도 일'군들이 대중의 우에 서서 일반적 호소나 하던 데로부터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의 앞장에 서서 솔선 수범하면서 대중을 이끌고 나가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각종 조직-기술적 문제들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기업 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유리한 가능성을 얻었다.

례하면 작년 말까지 각 직장들을 부속품 단위로 조직한 결과 모든 부속품들이 조립 직장에 균형적으로 넘어 오지 못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던 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도로서 우젤별로 생산 조직을 개편하는 길을 찾아냈다.

현장에서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또한 지도 일'군들의 사상 관점과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생산에서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이 그 얼마나 안타까와 하는가를 눈앞에 보았으며 로동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느꼈다. 그리하여 관리 일'군들은 사소한 작업 도구에 이르기까지 상비 공구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들의 작업 조건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서도 더욱 큰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관리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상 애로를 해결해 주며 교대로 로동자 합숙에 들어 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하고 로동자들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후방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장 전체 지도 일'군들이 순수 기술자, 순수 관리 일'군으로서가 아니라 우선 혁명가로서, 당원으로서 정치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자 대중의 적극성은 더욱 높아졌다. 로동자들은 《전 공장이 기대 옆에서 흥성거리니 새 힘이 솟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이다》라고 기뻐하고 있다.

생산 체육 경기 대회

대중의 앙양되는 열의를 실지 생산 성과로,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의 창조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조직 사업이 요구되였다. 대중의 기세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그를 방임해 둔다면 혁명 열의는 성과적으로 생산에 구현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 열의 자체가 오래 견지될 수 없다.

우리는 로동자들의 혁명적 기세를 한 계단 더 제고하며 그를 생산에서 발현시켜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하기 위하여 생산 체육 경기 대회를 조직 진행하였다.

생산 체육 경기 대회는 로동자들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생산과 일체 생활에서 모범을 창조하려는 그들 자신의 광범한 경쟁 운동이다. 그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체육 경기의 형식을 띠며 전체 로동자들을 망라하고 경쟁의 범위가 생산 뿐만 아니라 일체 생활까지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하며 대중적인 집단적 혁신 운동이라는 데 있으며 그것은 대중의 지혜와 재능을 가장 충분히 발휘시키며 선진 경험을 신속히 보급시킬 수 있게 한다.

지난 2월 22일에 있은 첫 경기 대회는 10여일 전부터 면밀한 사전 준비 사업을 거쳐 대중의 앙양된 정치적 열의 속에서 진행되였다. 경기 대회가 열린 단 하루 동안에 92건의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이 도입되여 허다한 약한 고리들이 퇴치되고 새 기준들이 창조되였으며 그 하루의 기준 수행 정도는 전 공장적으로 2.4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치 사업과 분리되여 단순한 《우승》만을 위하여 일한 몇몇 곳에서는 그 하루의 성과가 계속 공고화되지 못하는 편향이 나타났다. 이 경험에 토대하여 제 2차 생산 체육 경기 대회로부터는 경기 기간을 5~10일로 연장하여 비교적 긴 기간을 설정하고 경기 대회의 사전 준비 사업을 정치 사업을 통하여 더욱 면밀히 하도록 대책을 취하였다. 결과에 경기 기간 중에 창조된 새로운 기준량과 모범들이 공고화되고 있다.

생산 체육 경기 대회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높이였으며 일부 일'군들의 소극적 관점을 타파하는 뚜렷한 계기로 되였다.

이 대중 운동을 통하여 로동자들은 자신들이 기업 관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공장의 전체 사정에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이것은 이 운동이 대중을 기업 관리에 적극 인입하는 좋은 형식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로동자들과 관리 일'군들로 하여금 대중의 집단적 력량의 위대성을 굳게 믿게 하였으며 그에 튼튼히 의거하기만 한다면 모든 곤난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갖게 하였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 체육 경기 대회는 대중의 실천을 통하여 계속 발전되고 있다.

지도 사업의 개선, 광범한 대중 운동의 조직 전개, 그 결과 이루어지는 지도와 대중의 밀접한 결합—이것이 바로 대중의 열의를 계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3~4월에 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킨 우리의 중요한 한 개 체험이다.

근로자들의 높은 의식은 기술과 배합되여야 한다

로동자 대중의 높은 열의에는 지도가 결합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 배합되여야만 그것이 성과적으로 생산에서 발현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대중의 높은 열의에 기술이 결합될 때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정복하지 못할 기술적 요새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매개 작업이 높은 정밀성을 가진 기술을 전제로 하는 우리 공장의 실정에서는 높은 열의도 선진적 사상도 기술 없이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대중의 높은 열의는 필연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도록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우리는 기술자들 속에서 당 사업을 강화하고 매개 직장에 기술자 그루빠를 배치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설계도 개조하고 기술 공정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함께 실천 브리가다들을 조직 운영하여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제의하는 기술 문제들을 실지 생산에 도입하면서 한 단위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게 하였다. 이 외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고리들에는 특별히 기술 력량을 집중적으로 포치하여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한덩어리로 단합되게 하였으며 일할 때에는 《누가 기술자이고 누가 로동자인지 분간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이것은 로동자들이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기술과 열의의 결합—이는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결합으로, 매개 로동자들의 높은 의식과 높은 기술 기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기술과 대중의 열의와의 결합은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대중의 높은 열의가 빨리 그리고 성과적으로 생산에 구현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술자들이나 로동자들 혼자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기술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게 하였다. 대중의 높은 의식과 기술의 결합은 또한 로동자들의 열의를 계속 견지하며 그를 한층 높이는 데 있어서도 큰 작용을 놀고 있다.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킨 우리의 경험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공장의 모든 지도 력량을 동원하여 생산 현장에서의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전체 로동자들을 적극 기업 관리에 인입함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며 또한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에 기술을 옳게 배합하는 것—이것이 바로 대중의 의식을 계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열'쇠로 된다.

우리의 경험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자체가 또한 생산 실천을 통하여, 들끓는 대중 운동을 통하여 더욱 더 제고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의식과 생산 실천—이것은 호상 작용하며 호상 추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과는 아직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더욱 많고 어렵다. 자동차 생산량과 함께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생산에서의 기술-경제적 지표를 선진 국가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문제, 아직 남아 있는 기술 문제의 해결, 이 모든 것도 역시 대중의 높은 열의에 의거하여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능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의에 확고히 의거하며 기업 관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우리 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반드시 수행하고야 말 것이다.

(필자는 덕천 자동차 공장 당 위원장)

서적 해제 및 평론

정치 경제학 연구자들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

홍 만 기

최근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는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을 출판하였다.

필자 집단은 이 책이 정치 경제학을 처음으로 연구하는 당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조를 줄 수 있도록 전 서술 행정에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집필 출판된 정치 경제학 서적들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나 체계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전진을 이룩하였는데 이 책은 정치 경제학을 학습하는 당원들에게 방조를 주기 위한 자기 사명을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인정된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경제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행정에서 제기되는 리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한 리론 및 통속 서적들이 수 많이 집필 출판되였다.

지금까지 집필된 서적들의 공통적 결함은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과 당의 경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리론적인 해명이 부족하였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 리론을 해명하는 데 치중한 데 있었다.

필자 집단은 맑스-레닌주의 정치 경제학 리론이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결과에 이룩된 성과들을 옳게 분석 리론화하였다. 이 서술 행정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정치 경제학 리론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되였고 그의 내용이 풍부화되였고 발전되였는가 등의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과 우리 당의 경제 건설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과학성, 그의 생활력을 경제학 리론에 근거하여 론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전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러한 실례들은 해방 후 경제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자랑찬 성과들과 그 근원을 리론적으로 총화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편(6~10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필자 집단은 1946년에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으로부터 사회주의 인민 경제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의 우리 인민의 투쟁 행정을 과도기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에 립각하여 서술하였으며 조선 인민을 이러한 투쟁에로 인도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의 경제 리론적 기초를 기본적으로 옳게 천명하였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서 과도기에로의 이행이, 1936년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였으며……천명된 혁명 과업》(171페지)인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이 수행된 기초 우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사정과 《우리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인민 정권 형태로 실현》(179페지)되였다는 것을 론증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나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일반적 리론이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였으며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가 이 리론을 어떻게 솜씨 있게 우리 실정에 적용하였고 발전시켰는가를 론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주의편(11~21장)의 서술에서도 일관하게 반영되여 있다.

사회주의편에서는 매개 제목마다에서 정치 경제학의 일반 리론을 우리의 현실과 결부시키면서 서술하였고 해당 제목과 관련된 우리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가능한 정도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부분적 제목들에서는 정치 경제학의 범위를 벗어나 부문 경제학에서 취급하여야 할 령역까지 포괄하여 서

술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 우리 일'군들의 현실적인 요구인바 이는 이 참고 자료의 약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점으로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그 과정에서 발생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관계들의 의의와 본질을 대담하게 리론적으로 해명 분석한 것이다.

필자들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생산 발전의 전례 없는 속도는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나라의 주인이 된 조선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 높은 혁명성, 불요불굴의 완강성 그리고 새 것에 대한 감수성과 진취성》(277페지)에 오랜 혁명 전통을 가진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가 결합됨으로써 이룩된 산물이라는 것을 옳게 밝혀 놓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답게 일하며 생활하자》라는 구호 밑에 높은 로동 생산 능률과 작업 기준량을 창조하며 자기 자신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관계들에 대하여 이 책은 응당한 분석과 평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 발생 발전하고 있는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근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가 《전적으로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확립에만 그 근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혁명성,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보여 준 고귀한 혁명 전통,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그 주요한 근원이 있다》(342페지)고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필자 집단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기술 발전, 생산 조직의 개선 등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혁명적 열성,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자각성이 기술 발전에는 물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모든 다른 요인들에 대하여서도 결정적 영향을 주면서 생산 장성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고 있다》(360페지)고 의식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필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산주의에로 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이 공산주의에로 동시에 이행하는 합법칙성을 구명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필자 집단은 정치 경제학으로서의 응당한 체계를 갖춘 그러한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을 집필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일정한 전진을 보여 주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집필 출판된 정치 경제학 서적들은 정치 경제학의 개별적 제목이나 몇 개 제목 또는 개별적 경제 범주들을 해설하는 데 기울어짐으로써 정치 경제학으로서의 응당 갖추어야 할 리론 체계를 이루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금번 출판된 책은 사회 과학으로서 또한 력사 과학으로서의 정치 경제학이 가져야 할 체계를 갖추었다. 이 책은 원시 공동체 생산 방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매개 사회 생산 관계의 발생 발전 그리고 다른 보다 높은 생산 관계에 의하여 그가 교체되는 합법칙성을 체계적으로 해명하였으며 매개 생산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학으로서의 정치 경제학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일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필자 집단은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학을 학습하는 일'군들,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일'군들에게 경제 건설과 운영 및 지도 사업상 실제적인 방조를 주기 위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편과 《사회주의》편에 중점적인 주의를 돌렸다. 그들은 자본주의 이전 생산 방식들은 그의 기본 특징을 알려 주는 정도로 극히 간단하게 서술하였고 자본주의편은 사회주의 생산 방식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대담하게 요약 축소하여 서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이 참고 자료에서 자본가들에 의한 로동자들의 착취를 반영하는 자본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이며 중요한 모순들이 해명되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취급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제 2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가 어떻게 진행되며 그 결과 로동 계급의 처지가 어떻게 악화되는가가 서술되여 있으며 제 3장 《착취자 집단들 간의 잉여 가치의 분배》에서는 로동자들을 착취한 잉여 가치를 산업 자본가, 상업 자본가, 대부 자본가와 지주가 어떻게 노나 먹는가가 설명되였고 제 4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모순이 해명되여 있다. 이러한 서술 체계는 정치 경제학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일'군들에게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본질과 그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는 데 손색이 없을 뿐더러 나아가서 사회주의편의 학습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필자 집단은 지금 경제학계에서 론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본 견해와 도달된 결론들에 기초하여 해답을 주고 있다.

례하면 생산력의 구성 요소는 학자들 속에서 아직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로동 도구를 포함한 로동 수단과 이 수단을 움직여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력의 요소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생산력의 구성 요소에 로동 수단 뿐만 아니라 생산의 물적 요인 전체 즉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과 이것을 움직여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인간을 전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본 의견에 근거하여 인간의 로동, 로동 대상, 로동 수단 등 그가 호상 결합됨으로써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의 세 요소를 전부 생산력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상품 생산의 필연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경제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이 책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의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하에서 상품 생산의 필연성을 사회적 분업의 존재와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의 존재로써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서 사회 경제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는 현재 어떤 사회 제도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책이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과학성,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의 현명성을 체득케 하며 자기의 사상을 단련하며 과학적인 사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믿음직한 혁명 전사로 되게 하는 데 큰 방조를 주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금번 이러한 서적이 집필 출판된 것은 우리 당이 과학 발전에 일상적인 배려를 돌린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나라 정치 경제학 연구 분야에서의 진일보로 된다.

이 책을 더 충실하게 하며 처음으로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는 일'군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참고 자료로 만들려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일부 부족점들을 지적하려고 한다.

우선 이 서적이 가지고 있는 결함의 하나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 조성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제 관계들을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의 서술에서 특히 자본주의편 서술에서 잘 결부시키지 못하고 개별적 사실들을 단편적으로 또는 추상적인 자료들만의 인용으로 대치한 데서 초래된 것이다.

례하면 제 2장 《자본주의의 착취의 본질, 자본의 축적과 로동 계급의 빈궁화》에서는 상대적 및 절대적 잉여 가치를 서술함에 있어서나 자본주의하에서 로임의 본질과 형태, 로동 계급의 상대적 및 절대적 빈궁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응당 남반부 로동 계급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투쟁 정형,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정책과 야만적인 략탈 정책, 자본주의 제도의 추악상을 구체적 자료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남반부 로동 계급의 처지에 대하여 극히 간단히 그나마도 불충분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 나라 로동자들은 12~16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일은 일제하에서보다 더 길며 12~16시간에 달하고 있다》(45페지)와 《로동자들은 보통 12~18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160페지) 등등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인용된 자료들은 론리상, 자료상 불합리하며 나아가서 부정확하다. 그리고 남조선의 투쟁을 서술함에 있어서 《오늘 남조선 로동 계급은 로동일 단축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5페지)고 일반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마치도 로동 계급의 투쟁의 목적이 《로동일 단축》에 국한된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문 —166페지— 에서 약간한 보충적 설명이 주어져 있기는 하다).

사회주의편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편의 서술에 있어서도 남북 조선의 서로 판이한 형편을 대비하지 않는 등 처음으로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의 인식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 편들의 서술 행정에서는 남조선에서의 상품 류통 정형, 군사 예산 등이 대조적으로 취급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서술에서 현실적으로 보다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약하게 취급되였거나 또는 간과된 사실이다.

제 12장 제 1절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에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정신은 반영되고 있으나 지방 정권 기관들의 계획화 수준 제고 문제와 농업에서 계획화 수준 제고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상품 생산의 특성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상품의 사용 가치와 가치에 대한 일반적 해설에 그쳤고 그가 사회주의 기업소의 경영 활동과 계획화에서, 당 경제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끝으로 서술 체계 구성상 일부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

우선 자본의 순환과 회전을 통하여 산업 자본가,

상업 자본가, 대부 자본가 등 세 가지 자본가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평균 리윤률의 형성, 산업 자본가와 산업 리윤》이란 제 3장 제 1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응당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한 제 5장 《독점 자본주의-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를 그의 기본 표징과 함께 먼저 설명하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란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며 이는 주로 그의 기생성과 모순의 격화에서 표시된다. 기생성의 중요 원천의 하나가 식민지에서 착취하는 식민지 고률 리윤이며, 모순의 격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체계를 설명하고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와 그의 최후 단계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론리적일 것이다. 또한 령토의 재분할과 식민지 체계는 련결되여 있는 문제이므로 응당 제국주의의 기본 표식을 연구하고 식민지 체계를 연구한 다음 그의 력사적 지위를 연구하는 것이 독자들의 리해를 더 촉진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부족점으로 지적할 것은 이 책 제 5장 제 4절에서의 남조선 경제 체계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특히는 그의 제 2단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 령토의 재분할과 세력권 확장을 위한 경제의 군사화 등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에서 지적한 일부 부족점들은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 집필에서 달성된 성과들을 감소시키거나 참고 자료로서의 사명의 수행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의 집필 출판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영한 정치 경제학을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첫 초석을 놓은 것으로 응당하게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

정　　정

호수	페지	행수	틀　　림	옳　　음
4	9	29	1954, 4, 1.	1955, 4, 1.
4	11	29	(1954, 4, 1. 《당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55, 4, 1. 《당원들의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대하여》).

근로자 제 5호 (루계 174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인 쇄 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60년 5월 15일　　인 쇄 • 1960년 5월 10일

ㄱ—31236　　값 50전

서 적 안 내

김일성선집

(제 4 권)

국판, 양장, 571 페지, 값 2 원 50 전,
발행 부수 300,000부, 발행 5월

선집 제 4 권에는 1953년 8월부터 1956년 말까지의 기간에 저술한 주요 로작들이 수록된다.

선집 제 4 권에는《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와《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결함들과 그 시정 대책에 대하여》등 우리 당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들을 비롯하여 전후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천명한 강령적 문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집 제 4 권에는《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와《평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그리고《당원들의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비롯한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 및 결론,《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등 중요 문헌이 새로 수록된다.

이 서적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5월